

드림제주21

계간 제주의정소식지 2016 겨울

vol. 15

共感 | 제주해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疏通 | 2017년 예산을 들여다 보다

創造 | 2017 트렌드 제주





몸국

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암록색 해조류인 몸 말예요 남쪽 어느 섬에서는 그것으로 국을 끓여내는데요 모자반이라는 멸칭 한 이름을 놔두고 왜 몸이라 하는지 사람 먹는 음식에 하필이면 몸국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먹어보면 절로 알아진다는데요 단, 뒤엎켜 배지근해진 몸의 몸 설설 끓는 몸들이 당신을 뺏히 올려다보거든 시선을 얼른 피하셔야 한다는데요 십중팔구 속내 도둑 맛을 테고 늑골 마구 결릴 테니까요 몸이 몸을 먹는 일 한 외로움이 한 외로움을 먹어치우는 일 그거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울컥하기도 경건하기도 한 의식이잖아요 것 봐요 내 뒤흔어오 주의하랬잖아요 생각이 예까지 이른 걸 보니 그새 몸 쓸 몸에 제압당한 게 분명해요 몸이 화두가 된 게 확실해요 사랑을 폐한 게 틀림없어요

식어 뻗뻗해진 몸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는 당신 쫓쫓 울고 있군요 그러고 보니 당신 몸국을 시키기 전부터 그것의 유래를 몸소 알고 계셨던 게로군요

손 세실리아 작 / 시집 <꿈결에 시를 베다>



Contents

WINTER 2016

•
DREAM JEJU 21
VOL. 15



- 02 제주어 시
몸국 | 손 세실리아
- 06 의장 인사말
모든 위기는 변화의 씨앗을 품고 있다 | 신관홍

- 08 기획특집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제주해녀
제주바다는 내 마음을 받아주는 곳
벗이 있어야 물질한다 | 안미정
오래된 미래, 제주해녀 | 좌혜경
사명감을 가지고 지켜내야 하는 그것 “제주해녀” | 김지현
해녀를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 오창현
- 20 제주의 마을 만들기
수채화 같은 ‘미지의 섬’ 추자도, 비밀을 말하다



‘드림제주21’은 도의회의 일방적인 이야기가 아닌 제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해 나갈 도민 여러분의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드림제주21’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진은 2012~2014년까지 사계리해녀 회장을 역임한 김연선(64세) 해녀.



24 2017년 예산을 들여다 보다

2017년도 예산안 최종 의결

2017 주민참여예산 편성현황

‘주민요구예산’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의 변화 | 박근식

32 제주 바로보기

관광객 1,500만 명 시대, 도민의 실제 체감도는? | 고혜영

지속가능한 관광,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서용건

중국자본의 유입과 관광 | 고승익

38 생물종다양성과 소통

생물다양성의 의미와 가치 | 김창숙

42 2017 트렌드 제주

인공지능(AI) 시대, 독서교육이 답이다 | 김종식

지방자치, 주민 행복 위한 미래를 꿈꾸다 | 송정복

빅데이터와 제주특별자치도 | 노희섭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 | 이기우

52 테마가 있는 제주의 길 한라산 등반길

56 문화리포트 문화이주민과 예술 소통 | 오수정

58 제주의 신당 월정 봉향당굿 | 김승연·김기삼

62 제주어로 쓰는 산문(15) 하나뿐인 섬, 좋게 멘듬주 | 김창집

읽을거리

64 Information 생활법률- 점포 시설비 회수 | 오윤석

66 Visit 알고 싶어요 -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 편집팀

68 News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소식 | 편집팀

69 제주의 젊은작가 | 김지형



모든 위기는 변화의 씨앗을 품고 있다

●●● 다사다난했던 병신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한해의 끝자락에서 생각해 봅니다. 새해 첫날 가졌던 그 마음으로 살아 왔는가. 얼마나 내려놓고, 비우며 살아왔는가. 얼마나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왔는가. 자성의 시간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다짐합니다. 새해에도 이렇게 살겠노라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나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희망으로 끝을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급기야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촛불을 든 국민들의 마음이 거대한 횃불로 타올라 정치권을 움직였습니다. 이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심판은 끝났고 헌법재판소에 의한 사법적 심판만 남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과문 범죄 혐의 전반에 공모관계가 있다는 검찰수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책임지려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볼테르는 “사람들이 역사를 배우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아 있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아마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게도 하겠지만, 희망의 미래를 향해 온 국민이 하나가 되는 소중한 거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곧 엄동설한이 시작됩니다. 엄동설한에도 겨울을 나는 지혜가 있습니다. 식물은 다음해의 성장을 위해 종류에 따라 씨앗, 잎과 뿌리, 줄기를 이용하여 한 겨울을 납니다. 민들레는 잎을 땅바닥에 낮게 깔고 겨울을 나다가 하면, 나팔꽃은 모두가 말라 없어진 후 씨앗으로 겨울을 납니다. 우리의 엄동설한은 변화로 나아 합니다. “모든 위기는 변화의 씨앗을 품고 있다.”고 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적폐를 털어내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시점으로 여길 수 있다면 이 불행한 사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멸미의 괴로움을 줄이려면 멀리 보라는 말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다음 단단히 먹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2016년의 끝자락,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픔과 미움과 걱정을 다 날려 보내고 다시 떠오르는 해를 희망으로 맞이하는 일입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듯이, 오늘 이 순간이 새로운 꿈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행복합니다. 꿈을 시작하는 순간은 더 행복합니다. 지금이 바로 행복의 시작이길 기대합니다.

논어에 ‘세한연후 지송백지후조야(歲寒然後 知松柏之後彫也)’라는 말이 있습니다. 추위를 겪은 뒤에는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듦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추위가 오기 전에는 모든 나무가 다 푸른색입니다. 하지만, 추위가 오고 난 후에도 소나무와 잣나무만 푸른 자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그 존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소나무와 잣나무 같은 일관성을 지닐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챙기는 일들이 당연시되는 살만한 우리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노력하고 기여하는 2017년, 밝은 소망이 있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신 관 홍

共感

의정체감도를 높이는 공감의정



A photograph showing four divers in black wetsuits walking along a dark, rocky shoreline. They are carrying large, white and green floats and green fishing nets. The ocean is blue and calm, and the sky is clear. The divers are seen from behind, walking away from the camera towards the sea.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제주해녀

문화재청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 신청한 '제주해녀문화'가 10월 31일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 이어 11월 30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무형유산 정부간위원회 결정을 통해 제주해녀문화가 최종 등재됐다. 제주해녀문화의 주제는 해녀다. 제주의 바다를 온 몸으로 부딪히며 살아가는 해녀의 삶에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드림제주21 '공감'에서는 직업인으로서의 제주해녀의 삶과 함께, 해녀 공동체를 통해 본 해녀 문화의 가치, 문화재를 통해 살펴본 해녀의 역사, 그리고 해녀를 기반으로 한 향후 가치가 담긴 활성화방안 등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共感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제주해녀 ❶

제주 바다는 내 마음을 받아주는 곳

해녀 문화 보존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제주바다 살리는 일



해녀가 말하다

해녀 토크 콘서트가 11월 15일 저녁 7시 제주 시 아라동 듀라마더에서 열렸다. 새희망제주 포럼 주최로 열린 이날 콘서트에서는 대상군 김춘금 해녀, 김재연 마라도 해녀, 대한민국 최연소 정소영 해녀, 삼달리 미녀해녀 채지애씨, 그리고 영화 '물숨'의 고희영 감독이 참석해 해녀로서의 일상과 해녀를 바라보는 관점을 풀어냈다.

(일러스트 왼쪽부터)
김춘금, 김재연, 정소영, 채지애, 고희영

우리는 결코 바다를 이길 수 없습니다.

김춘금 | 대상군 해녀

먹고 살기 위해 배운 게 물질이지만, 지금은 해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집니다. 우리는 바다를 이길 수 없습니다. 바다는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물때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상군 해녀의 역할입니다. 욕심으로 한두 숨 더 다녀오면, 목숨이 위험한 곳, 그곳이 바다입니다. 해녀학교에 대해 많이들 얘기하는데, 해녀학교에서 한해 200명을 양성해도 실제 해녀로 활동하는 사람은 5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각 어촌계에서 자생적으로 해녀를 키워내는 것, 그리고 위험한 상황을 자연스럽게 몸으로 익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해녀를 지켜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해녀들이 바다에서 더 많이 잡을 수 있지만, 어른을 우대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해녀 문화입니다.

바다를 살려야 해녀도 삽니다.

김재연 | 마라도 해녀

환경오염으로 인한 바다 생태계 오염은 심각합니다. 바다를 들여다보는 해녀는 그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어요. 감태가 모두 썩고 있습니다. 환경 운동가가 얘기하는 환경오염 문제를 넘어 해녀에게 바다 생태계는 생존이 걸려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바다는 해녀들만의 것도 아닙니다. 해녀가 조금 더 나은 장비를 착용하고 들어가서 조업을 한다면, 바다는 아마 10년도 못 견딜 겁니다. 해녀가 바다를 죽이며 작업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해녀의 생활도 중요하지만, 바다가 더 중요합니다. 바다를 살려야 해녀도 삽니다. 물질하는 해녀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제주 바다가 우선입니다.



두려움도 있지만 해녀가 운명임을 느낍니다.

정소영 | 대한민국 최연소 해녀

해녀의 안전을 위해 장비를 더욱 보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 많은 수확을 올리는 것은 진짜 해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이라면 단 한 가지. 상어를 쫓는 방법이 좀 연구 되었으면 합니다. 상어가 나타났을 때의 심정은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항상 들어가야 하는 바다인데, 인간으로서 두려움이 듭니다. 상어를 만난 다음날에도 바다에 들어갑니다. 막상 물에 들어가면, '내가 왜 바다를 두려워했지?' 하며 편안함을 느낍니다. 언젠가 어머니에게도 이젠 해녀일 그만하라고 말했었지만, 막상 내가 물질을 하다 보니,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해녀가 운명임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해녀, 그것은 해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채지애 | 삼달리 미녀해녀

해녀의 안전이나 편리성을 위해 장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비싼 수경을 사서 해보았다가 다시 원래 수경으로 바꿨습니다.

그동안 해녀가 사용하던 장비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해녀 분들이 실제 물질을 한 경험으로 아주 조금씩 발전되어 온 것임을 느꼈습니다.

해녀가 재래식 장비를 들고 바다로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해녀의 작업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오랜 시간이 걸려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해녀에게 정말 의미 있는 장비입니다.

최첨단 장비로 무장해 바다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해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해녀가 왜 가치 있는가에 대한 기록 중요

고희영 | 영화 '물숨' 감독

"왜 해녀가 가치 있는가?"에 대해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바다를 보면, 하루의 물질이 그려진다는 것은 살아 있는 지식"이며, "또한 바다 생태계의 변화를 가장 먼저 들여다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해녀이므로, 가치가 크다."고 대답합니다. 해녀 분들이 바다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산소통을 매고 바다로 들어가지 않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분들은 바다를 자신의 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바다를 키워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약속이 있다."고 말합니다. 해녀의 가치, 유네스코 등재 등을 얘기하지만, 그 어떤 타이틀에 앞서 '해녀가 주체가 되고 주인공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벗이 있어야 물질한다 제주해녀(잠녀)의 벗 문화

글 안미정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HK연구교수
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지난 11월 30일 에티오피아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제주해녀문화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제주해녀문화는 살아있는 문화로서 물질이라는 생업활동이 보여주는 생태적 가치(자연과 인간의 지속적 공존)와 인류가 지향해야 할 보편의 가치(공동체적 삶)를 구현하고 있는 생활방식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지적됐다. 제주에서 물질은 익숙한 풍경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익숙한 일들에 대해 한발 물러나 다시금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다. 왜 고도의 생산성을 지향하는 현대산업사회에서 물질은 어떻게, 왜 지속되고 있는 것일까? 지금의 수산업법상 규정된 제도에 의해 이러한 전통적 어업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이들이 스쿠버 다이빙을 배운다면 더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일까? 또한 바다의 양식장에 전복 치폐를 뿌리는 사업을 하면서도 왜 “요왕할망(해신)”이 소라 전복을 키워준다고 생각하며 매년 제(잠녀굿, 잠수굿)를 올리는 것일까? 제를 지내며 해안에 뿌리는 씨앗은 진짜 해산물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우매함을 보여주는 것인가? 그러면서 해신과 자신들을 조상-자손의 친족 관계로 관념하는 것은 무엇을 시사하는가?

제주해녀들이 자주하는 말로 “벗이 있어야 물질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이야말로 제주해녀문화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 “벗”을 함께 일하는 동료만이 아니라 이들이 잡는 해산물과 이들이 관념하는 바다의 신 모두가 자신의 물질을 가능케 하는 ‘벗’이라고 해석한다. 해산물에 대한 고마움은 생계적 측면에서 알 수 있는 것이고, 이웃의 벗은 서로 채취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서로 발일과 경조사를 서로 돕는 생활의 연대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욕심을 명심하라”는 말에는 숨이 켜지는 것도 모른 채 더 잡으려는 욕심과 이웃 동료와의 지나친 경쟁을 경계함으로써 남획 방지와 호혜적 사회관계를 지지하는 뜻이 숨어 있다고 본다. 또 물질이 아무리 능숙해도 혼자 물질하지 않는 까닭은 물때라는 생태적 조건과 관련이 있고 벗이 없다면 초래될 물리적 위험이 있기도 하지만, 바다는 모두의 자원인 공유



왜 고도의 생산성을 지향하는 현대산업사회에서 물질은 어떻게, 왜 지속되고 있는 것일까?



지(共有地)로 이를 공정하게 이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어겼을 때 해
녀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이다.

물질을 한다는 것은 비단 해산물 채취의 요령을 알고 몸의 물질기량을 능숙
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물질을 “못 배워서 한 일”, “전상” 등으
로 말하지만, 이 같은 선택의 불가피함은 당시 여성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여
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끊임없는 반복되는 자맥질처럼
‘바다를 조상의 세계로 수용해 가는 과정’이 물질이 아닌가 한다. “요왕은 골
고루 멕인다(먹인다)” 수확이 많을 때가 있으면 망칠 때가 있고 바다의 것은
조상신이 골고루 주는 것이므로 이러한 기대가 있어 그녀로 하여금 발길을
바다로 향하게 한다. 바다를 조상의 세계로 관념하는 것은 사회의 반영이기
도 하지만 이들의 윤리의식을 보여준다. 조상의 세계를 함부로 하는 자손은
없을 것이므로. 이처럼 물리적, 사회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서로의 생활을 지
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그리고 지속적 생활을 위해서 벗이라는 호혜성을 가진
공동체적 문화를 형성해 온 것이다.

물질하는 동안 테왁을 짚은 제주해녀들은 자신의 위치를 멀리 보이는 한라산
과 오름들을 통해 가능한다. 바다에서 산은 더 가까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
다. 수면 위의 바다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수면 아래를 동시에 경험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이들 사이의 해양세계관은 큰 차이가 있을 것
이다. 또 우리는 물질이 이뤄지는 마을어장을 보며 지금은 사라진 마을목장
의 추억을 떠올릴 수도 있다. 제주도민이 어떻게 공유지를 이용하며 공동체
적 삶을 살아 왔는가를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다. 결국, 필자는 제주해녀문화
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본다. 제주도민
의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이 문화를 소멸 위기에 있는 구제문화로 본다면
북미 인디언의 경우처럼 기록과 채록 등의 구제민족지적 작업에 치중하게 될
것이다. 반면 이 문화를 살아있는 문화에 방점을 두어 접근한다면 시대적 변
천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 온 문화적 저력이 무엇이며 어떠한 변화에 직면해
있는가에 우리의 눈은 향할 것이다.

共感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제주해녀 ㉓



오래된 미래, 제주해녀

글 좌혜경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센터 전문연구위원
사진 권기갑 작가

일정지역 만이라도 생업과 문화가 지속가능하도록, '해녀'를 국가지정무형문화재로 지정해야...

제주해녀에 대한 오늘날의 이미지는 과거와는 사뭇 달라졌다.

지금부터 10년 전 '바당의 어멍'을 주제로 해녀박물관을 오픈할 당시, 오직 직업군으로만 인식되던 '해녀'들의 이미지에 문화다양성을 덧붙여 강조하면서 '강인한 여성의 삶'을 바탕으로 전시 작업을 했던 것이 오래된 미래를 예견이라도 한 것 같다.

제주해녀에 대한 최초의 문헌기록은 이건(李健)의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1629)를 들 수 있으며, 일본 7세기 '탐라북'(耽羅鰓) 관련 기록으로 보면 해녀 문화의 전승 시원(始原)은 오래전으로 소급될 수 있다.

그동안 제주해녀는 제주여성의 삶을 상징하고, 해녀문화가 제주문화의 대표성과 고유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인식되어져 왔다.

물속에서 행해지는 '물질' 작업기술의 특수성, 생태에 관련한 민속지식의 축적, 험난한 물속 작업에서 만들어진 무속신앙(의례와 해신당), 제주민요의 대표격인 해녀노래, 전통의 물웃과 물질도구, 공동체의 관습 등 독특한 여성공동체의 문화는 지역만이 아닌 한국전통문화 대표격으로도 자리매김이 가능하다.

유네스코는 제주해녀가 생업을 영위하고 있고, 살아있는 문화유산 LIVING HERITAGE 이면서 지속보전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일명 ICH 협약)에 등재 권고를 했다. 협약의 제2조에는 '무형문화유산'을 "공동체·집단 및 개인들 문화유산의 관습·재현·표현·지식·기술뿐만 아니라, 도구·사물·공예 및 문화 공간 모두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해녀문화는 협약에서 가장 적합한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문화재보호법으로 지정된 무형문화재는 '해녀노래(도지정 무형문화재 제1호, 1971)'와 '제주해녀의 물웃과 물질도구(도지정 민속자료 제10호, 2008)'가 있으나, 이러한 단일종목의 문화재 지정은 해녀문화를 보전하는 데 큰 의미가 없다.

해녀문화의 지속가능성은 물질 작업의 지속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작업하는 해녀수의 감소와 기후 온난화 등 생태계 변화에 따른 자원 감소로 해녀문화 보전의 시급성이 공감

되고 있다. 곧 작업할 수 있는 해녀들의 수가 급감하고 작업 상황과 어장관리 체계 변화, 해녀공동체 와해, 전통문화 붕괴 등이 불가피한 실정에서 일정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우선적으로 일정지역 만이라도 생업과 문화가 지속가능하도록, '해녀'를 국가지정무형문화재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 40대 미만의 신규 해녀들을 교육기관(해녀학교 등)에서 일정기간 교육 후 어촌계 영입으로 물질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한다. 해녀수가 많고 해녀문화가 잘 남아 있으며 어족 자원이 풍부한 어촌계의 해녀들을 '국가지정무형문화재'로 단체 지정한다. 그 중에서 최고상군 해녀를 보유자와 교육조교로 지정하고, 신규 해녀를 전수 장학생 또는 해녀문화 전수생으로 영입하여 작업 기술을 익히고 전승문화도 전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주해녀문화의 '오래된 미래'에 대한 기대와 함께 과거 제주 바다와 육지부, 일본 등 외지의 바다 어장을 개척하던 제주여성의 강인한 기개에 고개가 숙여진다.





사명감을 가지고 영원히 지켜내야 하는 그것 “제주해녀”

글 김지현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사진 권기갑 작가

오늘날 제주해녀에 대한 이미지는 과거 생계형 물질과는 사뭇 다른 제주도의 상징성으로 굳어지고 있다. 해녀는 어업의 한축일 뿐만 아니라 제주문화의 원형질로써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해녀구성원들의 고령화, 젊은 해녀들이 사라져 가는 현실 등 해녀들은 오늘도 너른 바다에서 생사의 언저리를 맴돌고 있다. 파도와 너울, 수압 같은 외로움과 공포를 마주하며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감정의 한계를 넘나들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해녀라는 직업이 고되고 극한만큼 아름답고, 영원히 지켜내야 한다는 것에 제주도를 넘어 전 인류가 공감한다는 것이다.



제주해녀는 제주여성의 삶을 대표한다. 해녀문화는 제주문화의 상징성과 고유성을 유지하고 있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보존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5년 12월에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로 지정됐고, 지난 11월 30일 제주 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그동안 우리 도는 문화적·실질적 측면에서 해녀 보호·육성을 위해 매년 약 140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25개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해녀들의 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펴왔다.

해녀 육성을 위해 해녀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희망어촌계와 연결시켜주고, 어촌계 가입비를 소정 지원하고 있으며, 실질적 소득향상을 위해 수산종묘를 심어주고, 종자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투석도 하고, 조업하러 가기 편하도록 어장진입로도 정비를 해주고 있다.

안전조업을 위해 유색해녀복, 테왁망 그리고 해녀지킴이를 통한 안전장비를 지원했다. 잡은 어획물을 손질할 수 있는 해녀작업장시설, 해녀 주 소득원인 소라의 가격보전도 일부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해녀 복지시설로 조업 후 온돌방에서 몸을 녹일 수 있는 해녀사워 및 탈의장 시설과 운영비 지원, 잠수 감압병 외에도 조업으로 생긴 각종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진료비 지원과 작업 시 상해 등을 입을 경우를 대비해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비도 지원하고 있다.

제주의 해녀들은 새내기해녀든 할망해녀든, 상군이든 하군이든 잠수능력에 상관없이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원칙으로

한다. 체력이 달려 잠수능력이 약해진 고령의 해녀분들을 배려하는 독특한 해녀공동체문화를 가지고 있다.

우리 도에서도 수심이 얕은 곳에 투석 등의 시설과 종묘방류를 해서 일명 “할망바당”이라는 고령해녀 전용어장을 조성·확대하고 있으며, 물질 외에도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도록 해녀공연, 해녀식당, 직매장 등의 시설 지원 등 어업 외 소득원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도에서는 제주 경제의 버팀목을 해왔던 우리 제주해녀를 위해 해녀연금, 직불제 도입에도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다.

해녀라는 직업은 목숨을 담보로 하며 매우 고되고 고독한 직업이기도 하지만, “직업생활 전부터 후까지, 어떻게 해야 이 직업이, 이 문화가 영원히 이어질 수 있을까 끊임없이 연구하고 지원을 받는 직업군”은 아마 우리 제주해녀가 유일무이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제주해녀는 그럴만한 가치가 분명 있으며, 직업군으로서의 가치성 보다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자체를 소중한 제주문화로 인식해야 하지 않나 싶다.

제주해녀는 충분한 전승가치가 있고, 앞으로도 이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지원은 계속될 것이다.

거친 바다와 마주하며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해왔던 “제주해녀”, 지금도 새로운 변화를 위해 나아가고 있는 그들의 강인한 기개에 숙연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며 항상 안전 조업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해녀를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글 오창현 / 제주관광공사 관광산업처장 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제19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테마부문 금상 '제주해녀 캐릭터(숨비, 소리) 이야기'

어릴 적 어른들이 제주의 바다를 두고 바다밭(바당밭)이라 부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여겼다. 그런데 육지에 올라가 살면서 육지의 바다 또한 이러한 표현을 쓰겠지 라는 내 생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딱히 이분할 수는 없지만 육지에서는 바다는 바다이고 밭은 밭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제주에서 바다일은 농사의 연장이었고, 반농반어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공동의 밭인 제주 바다에는 등급 이름도 있다. 어린 소녀들이 잠수를 배우는 '애기바당', 나이든 해녀들을 위한 '할망바당' 등. 무엇을 채취하는가에 따라 바다밭 이름을 짓기도 하고 수심에 따라 거리에 따라 다양한 바다밭 이름이 있다. 이처럼 마을의 작은 바다에 수많은 이름을 가진 곳이 또 있을까? 그리고 세화리와 사계리 해녀들이 쓰는 호맹이의 길이나 각도가 작지만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주는 화산섬이고 화산활동으로 제주의 해안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용암이 흐른 곳과 용암의 성질에 따라 바다가 달라, 해녀들이 사용하는 도구 또한 지역마다 달라야 했을 것이다.

이처럼 해녀들의 밭인 제주 바다는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고 이런 자연환경을 지혜롭게 이용해 온 제주 해녀의 채집기술과 그녀들만의 독특한 문화는 유일하다시피 하다. 또한 다원적 자원(어업자원, 사회문화자원, 경관자원)으로서 순기능을 가지고 있어, 유네스코(UNESCO)에서도 인류가 보존해야 할 가치로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제주 해녀는 화산섬 자연환경과 공존했던 제주 문화의 정수이며, 대표하는 문화원형이자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녀 문화의 복원, 전승, 활용과 발전이라는 세 가지 원칙의 이행은 제주의 생태적·문화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내발적이면서

유네스코 등재와 맞물려 해녀문화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활용 방안은 현 시점에서 매우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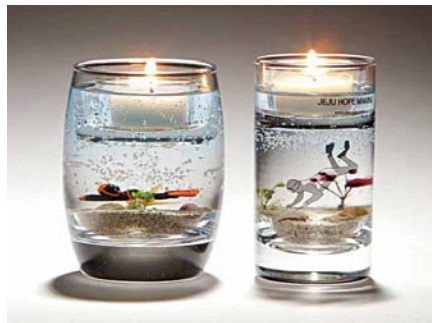
제19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테마부문 은상 '해녀 수경 우드스피커'



제19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테마부문 동상 '제주해녀캐릭터(소중이) 시리즈'



제19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테마부문 은상 '해녀인형(고무옷, 물웃) 만들기'



제19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테마부문 동상 '해녀캔들홀더'



제19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테마부문 입선 '해녀의 바다 스노우볼'

제주를 대표하는 세계적 문화관광상품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이중 활용방안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2013년 일본 NHK 아침드라마였던 '아마짱'은 최고시청율 27%를 기록하며, 아마(해녀)가 된 신세대 주인공으로 인해 일본 열도에는 아마 열풍이 불었고, 마을에는 관광객이 넘쳐나고, 이미 고령화가 되어 버린 아마를 하겠다는 젊은이들이 나타나는 등 큰 화제를 낳았다. 드라마라는 영상콘텐츠 덕분이었다.

최근 제주에도 해녀에 대한 관심이 크다. 해녀를 소재로 하는 캐릭터와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고, 공방 등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예쁜 기념품도 제법 많아졌다. 해녀학교에는 물질을 배우겠다는 젊은이들도 많아졌고(물론 모두 해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녀들과 함께 해녀복을 입고 스노쿨링을 하는 체험상품도 인기가 높다.

이러한 이유에는 해녀문화의 가치를 이해시키고 홍보를 꾸준하게 해

온 덕분에 있지만, 감귤을 저장하던 돌창고가 카페로 변신하여 인기를 누리고 있듯이, 좀처럼 볼 수 없는 옛 원풍경과 오래된 원형을 찾는 현상인 로트렌드(Raw Trend, '익히지 않은 가공되지 않은 날 것')로 인해서다.

따라서 이러한 트렌드와 유네스코 등재와 맞물려 해녀문화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활용 방안은 현 시점에서 매우 필요하다. 가볍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해녀아이돌> 육성과 영상콘텐츠화를 통한 젊은 층 유인, 해녀들을 참여시키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의 개발, 웰빙식단인 해녀밥상의 보급과 채취한 해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 캐릭터와 기념품 등 문화상품 개발 등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들이다. 이를 통해 오히려 해녀문화의 원형복원과 전승의 당위성이 부각되는 자연스러운 모티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해 본다.



수채화 같은 ‘미지의 섬’ 추자도, 비밀을 말하다

글 디자인리더제주 사진 권기갑 작가

제주 안에 또다른 섬, 추자도. 깊어가는 가을을 뒤로하고 겨울바다와 마주해 조용히 걷고, 자연 속에서 명상하고 싶은 사람들의 동경 대상이다. 차가운 바닷바람에 굽이치는 물결도, 원시의 짙은 어둠속 밤하늘에서 떨어지는 유성도 보고 싶은 계절이다. 때묻지 않은 섬, 추자도에서 일상에서 벗어나 하루만이라도 보낸다면 저물어가는 올 한해도 아쉽지 않으리라.

추자도는 섬관광의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신(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양식산업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추자도는 ‘202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광객 20만 명 시대를 기약하고 나섰다. 특히, 현재 조성된 추자도 올레길을 테마별로 세분화해 새로운 관광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하늘길과 바다길을 조성해 눈길을 끈다. 천천히 걸으며 ‘미지의 섬’ 속의 숨겨진 비밀스러운 자태를 탐방객에게 제공한다는 취지다. 섬이 간직한 역사와 문화를 가미한 스토리텔링을 들으며 발끝으로 느끼는 신비감은 추자도 관광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기에 충분하다. 순수함이 더 많은 섬, 추자도. 그래서, 더욱 매력적이다.



용동범목재 계단길



봉글레산 정상

나바론 하늘길, 모세의 기적 다무래미, 몽돌 바다길 절경

추자도는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섬’이다. 전국적으로 걷기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알음알음 입소문을 타고 추자의 올레길 코스가 제법 인기다. 관광객으로 가득찬 제주 본섬의 올레길이 아닌, 배를 타고 들어가 조용하게 사색하며 색다른 바다풍경을 볼 수 있어 더 매력적이다. 밤이면 추자도의 진가는 더욱 돋보인다. 항구에 반짝이는 별빛과 잔잔한 항구의 물결 위로 떠가는 가로등 불빛, 그리고 저 멀리서 반짝이는 어선들의 불빛도 이채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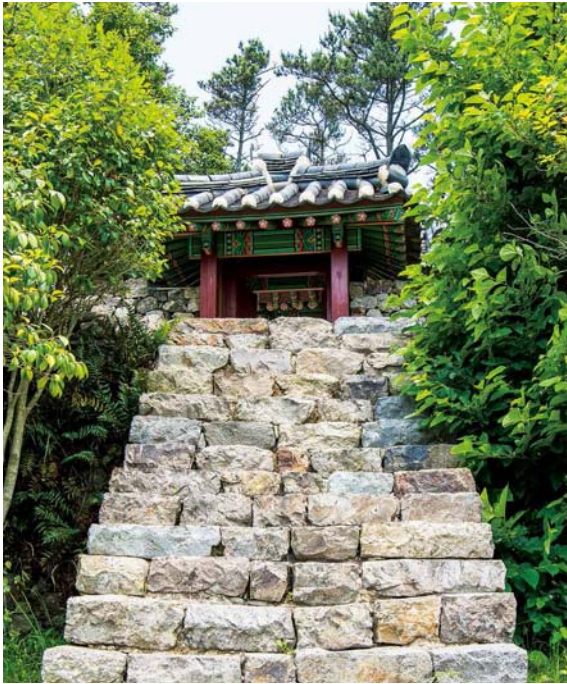
바다로 고립된 공간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섬관광의 묘미다. 추자도는 한번쯤 꼭 들러야 하는 신비의 땅이다. 추자도는 상·하추자도, 추포도, 횡간도 등 4개의 유인도와 함께 천연기념물 제333호 습새 등 해조류 번식지를 품은 사수도 등 38개의 무인도를 거느린 군도(群島)로서 ‘제주의 다도해’라 불린다. 빼어난 절경과 망망대해에 펼쳐진 독특한 섬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힐링이 된다.

추자면이 올해 추자도 고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입힌 ‘후풍의 길’, ‘신비의 길’, ‘창조의 길’, ‘바람의 길’, ‘모정의 길’로 나눠 탐방객들에게 신선함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이들 테마길은 직구낙조, 횡간추범, 추포어화 등 추자심경을 품고 있어 볼거리가 많다.

‘바람이 길을 허락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후풍도로 불렸던 추자도. 후풍의 길은 <추자항~등대산~최영사당~봉글레산~후포~목계~순효각>을 잇는 도보길이다. 설촌의 역사와 김방경, 최영 장군, 김상헌, 안조원, 김만덕의 역사속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최영 장군이 탄생한지 꼭 700년째로 여느 해보다 의미가 깊다. 김만덕 할머니가 궁궐로 들어가기 전에 하루 쉬었다는 간 곳도 바로 추자도다.

신비의 길은 <순효각~박씨처사각~등대공원~나바론하늘길~추자대교>를 걷는 여정이다. 추자 사람들이 자랑하는 비경 중의 최고인 ‘나바론 절벽’을 할는 가까이에서 만끽할 수 있다. 창조의 길과 바람의 길에서는 묵리 산길과 동산, 대왕산과 돈대산, 모진이를 만날 수 있다. 모정의 길은 천주교박해로 귀향길에 오른 정난주 마리아가 아들 황경한을 노비가 되지 않도록 예초리 갯바위에 놓고 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천주교 순례의 길로도 유명하다. 그 곳에서 바라보는 일몰의 광경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썰물이면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다무래미와 모진이해수욕장의 파도에 밀리는 몽돌의 동그란 울림도 이색적이다. 발이 닿는 곳마다 스토리가 무궁무진한 도보여행의 참맛, 그것은 추자도의 미래 가치다.



최영장군 사당



추자도 예초리 입구 이정표(上)와 추자도 올레관광길(下)



‘2020프로젝트’, 6차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 ‘부활’을 꿈꾸다

참조기 위판량 감소와 인구 유출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최근 몇 년 새 추자도가 위기를 맞고 있다. 어업활동이 주를 이루는 경제구조는 이미 몇 해 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추자도는 양식산업과 관광, 그리고 마을기업 활성화 등을 통한 6차산업 사업화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했다. 여기에 제주관광공사가 힘을 보태며 숨겨진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가 어우러지는 추자도만이 갖고 있는 ‘명품관광’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추자도는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찾아오는 관광어촌·친환경 양식섬 육성’을 목표로 ‘2020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풍요로운 어촌 조성을 위해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어업장비 현대화 및 어업인 장터 운영, 특산물 집중화, 양식섬 특화사업, 신규어업 육성 등을 구상하고 있다.

추자도는 현재 연간 5만 명에 머물고 있는 관광객을 향후 20만 명을 목표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가동하고 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하늘길(하늘공원), 바닷길(낙시공원) 등의 관광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청정해역에서 생산·양식한 각종 해산물과 약초 등을 활용한 6차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추자도는 제주관광공사와 ‘추자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상품개발 및 6차산업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추자도

고유 섬문화와 차별성을 토대로 추자관광 브랜드 구축 및 6차 산업화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추자도 주민을 중심으로 한 관광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관광브랜드 개발, 관광콘텐츠 기획 및 상품화 등에도 주력하고 있다.

제주관광공사는 수려한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추자도만의 특색있는 상품을 개발해 이를 6차산업과 연계, 신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로 유도를 꾀하고 있다. 또한 지질트레일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맞물려 지역의 공동수익 구조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제주관광공사는 추자도가 지닌 독특한 역사·문화를 가미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등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추자도 도보 관광지도의 디자인 개발과 제작도 추진중이다. 인터넷과 SNS에 추자도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 사진을 통한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핫스팟 소개, 개별관광객 위주의 도보여행 등 종합적인 관광지도를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제주 최북단 횡간도 양식섬 만들기 프로젝트 ‘주목’

1970~80년대 7000명에 육박했던 추자도의 인구가 최근 4~5년새 집중적으로 빠져나가며 올해 초 2000명 선마저 무너졌다. 특히 섬이라는 특성상 특산물인 참조기 잡이 어선



추자도 전경

들의 주축을 이루는 젊은층이 대거 제주시로 이주하면서 추자도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며 추자 역사상 가장 큰 위기로 내몰렸다.

하지만 제주도에 편입한지 100여 년을 맞는 추자도가 '2020 프로젝트'라는 신성장동력을 가동, 양식과 관광을 아우르는 6차산업 활성화를 꾀하며 자립 의지를 키워가고 있다.

추자도는 지리적 위치상 본토와 제주본섬과 각각 50여km의 거리를 두고 중간지역에 위치하면서 청정 해양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천혜의 자원을 활용, 추자도의 양식업 만들기 프로젝트는 시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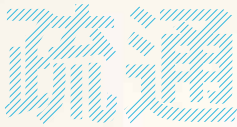
추자항 내항은 우렁쉥이(멍게) 종묘 심기가 요즘도 한창이다. 추자도수협 조합원을 비롯한 어촌계, 주민들이 기다란 줄에 신중하게 종묘를 붙이기에 여념이 없다. 추자면 대서리 횡간도 앞 바다목장 16ha에 펼쳐진 우렁쉥이 양식장 현장. 추자도수협 직원들이 현장에서 어선을 타고 우렁쉥이의 성장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특히 이곳은 바다의 수심이 깊고 청정하기로 유명하다. 양식현장은 한눈에 봐도 추자도 본섬과 횡간도를 사이에 둔 천혜의 양식장이다. 거대한 바다목장이 추자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임에 틀림없다.

박문헌 전 추자도 특별보좌관은 추자도가 안정적인 어업수익구조를 갖기 위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정호 조합장은 "현재 추자도 현장에서 우렁쉥이를 비롯한 돌돔과 참돔, 우럭 등에 대해 양식

산업을 진행하고 있고 요즘 우렁쉥이 종묘작업에 수협직원을 비롯한 어촌계, 주민 등이 대거 투입돼 매진하고 있다."고 했다. 양식업은 추자도의 미래 경제와 직결된다는 의중이다. 제주도는 2012년을 시작으로 추자지역의 청정 해양환경과 지역특화 품종을 활용해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한 '추자도 양식업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이 사업에 65억 6,700만 원을 패조류 종묘배양장(3억 원), 양식시설(11억 6,700만 원), 소파시설(51억 원) 등에 투자하고 있다. 참돔 등 각종 어류와 참치, 우렁쉥이, 홍합양식이 성패가 곧, 추자의 미래다.



종묘를 붙이는 마을주민(上)과 추자도 후포해안 가두리양식장(下)



배려하고 협력하는 소통의정



2017년 예산을 들여다 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14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2017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에 비해 3천 5백억 원 (8.4%) 증가해 4조 4천 5백억 원 규모로서 2016년 이후 본격적인 예산 4조 원 시대를 맞고 있다. 2017년도 교육청 예산안은 전년도에 비해 799억 원(9.7%) 증가한 9천 1백억 원 규모이다.





2017년도 예산안 최종 의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14일 제347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2017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 의결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은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 동의했다.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경우 일반회계 3조 7,117억원, 특별회계 7,376억 원 등 총 4조 4,493억 원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 중 세출부분에서 총 274억 1,700만 원을 삭감해 민간보조금 등으로 증액 편성했다. 일반회계에서 257억 1,100만 원, 특별회계에서 17억 600만 원이 각각 삭감됐다.

총 조정액은 지난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에서 △행정자치위원회 33억 7,800만 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40억 5,400만 원 △환경도시위원회 41억 3,500만 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28억 원 △농수축경제위원회 53억 4,600만 원 등이 삭감된 것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추가적인 조정이 이뤄졌다.

앞서 예정위는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국비 지원 및 국회프리존 통과 미정으로 인한 ICT 기반 스마트관광 20억 원, 내연기관 차량 대차 전기차 보조금 지원 12억 원, 문화예술재단 운영비 6억 원, 제주크루즈산업 네트워크 활성화 1억 원 등 총 257억 1,100만 원을 감액했다.

감액한 예산은 제주 연으로 확장 사업 12억 2,000만 원, 제주시 도로 포장 보수에 10억 원, 서귀포시 지방하천 정비 사업비 1억 원 등으로 증액 편성됐다. 특히 이번 예산이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3,465억 원이 증가한데 반해 복지예산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저소득 독거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2억 원 등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특히, 증액 예산의 137억 3,500만 원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됐다.

교육비 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은 당초 9,069억 5,532만 원에서 지자체전입금 미편성액 31억 4,117만 원을 반영하고, 순세계잉여금 과소추계 31억 3,082만 원 등 총 62억 7,200만 원이 증액된 91억 3,227만 원으로 조정됐다.

세출 예산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지원 17억 1,000만 원, 다자녀학생 학비지원 15억 원, 교무행정 실무원 배치 7억 6,500만 원, 교육과정 벤치마킹 국외연수 2억 9,000만 원, 제주교육정책 홍보지원 4억 3,300만 원, 시설환경개선 사업비 4억 원 등 총 55억 7,800만 원을 감액했다.

2017년 예산 결정, 견제와 신뢰 그리고 협력의 결과

김경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난 12월 14일 2017년도 제주도 예산이 4조4,493억 원으로 의결되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일반회계의 삭감 규모는 257억 원이고, 내부유보금 137억 원을 제외한 사업비 증액 규모는 120억 원이다. 이번 예산심사의 가장 큰 특징은 의회가 증액한 사업에 대해 집행기관이 '동의'했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기관에 있고, 예산의 심사권은 의회에 있다. 의회는 편성된 예산에 대해 삭감할 수 있으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할 권한은 없다. 만일 예산심사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할 경우 집행기관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 이때 집행기관은 '일부 부동의'하거나 '전체 부동의'할 수 있다. '전체 부동의'의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와 집행기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의회 의원과 집행기관의 장은 모두 주민이 선출한 대리인이다. 그렇지만 각각의 기관에 서로 다른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책임부여와 견제 및 감독을 통해 주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구도로 인해 양 기관 간 갈등 발생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

우리 제주도는 민선 6기를 맞아 의회와 집행기관 간에 '예산전쟁'이라 불릴만한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겪어왔다. 이러한 과거의 사실로부터 의회가 증액한 2017년 예산안에 대해 집행기관이 '동의'한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작지 않은 규모임에도 '동의'된 것은 증

액사업의 면면을 집행기관에서도 인정한다는 의미이며, 이에 앞서 양 기관의 신뢰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회 스스로의 신뢰를 실추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4일간의 짧지만 격렬한 예산 심사 과정을 거쳤다. 감액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은 마치 전쟁을 방불케 하였다. 다섯 차례에 걸쳐 상임위원회 감액 결과를 재확인하고, 추가적인 감액 대상 사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전기차', 'MICE 시설'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 13명 예결 위원 각자의 관점을 조율하는 과정은 진통의 연속이었다.

예산 증액과정에서는 예결위와 집행기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각자 부여된 권한만을 행사한다면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주민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증액사업을 집행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시급성과 소요예산을 최우선 고려하였다. 나눠주기식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연으로 도로 사업 등 중요한 현안에 예산을 배분하였고, 집행기관이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독거노인 난방비 지원 등을 편성하였다. 치열한 4일간의 예산 심사 결과 감액과 증액의 균형이 이루어졌고, 예산 결정 과정에서 갈등이 사라졌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두 기관 간 신뢰가 구축되었다.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은 물론 제주도에 1차 산업 및 관광산업의 위기가 올 것이란 예측이 많다. 국제자유도시로의 여정은 더욱 험난한 파도를 넘어야 한다. '견제'와 '협력'의 조화가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 2017년 본예산안 심사와 의결과정은 예산 심사의 새로운 전환점이자, 제주 미래의 새로운 희망이라 할 수 있다.

疏通

2017년 예산을 들여다보다 ②



주민참여예산 전년비 13.3% 증가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 재정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3년 도입됐다. 2017년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총 285개 사업에 17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3.3% 증액 편성되었다. 주민참여예산은 도입된 해부터 2015년까지 각 132억 원, 2016년에는 150억 원, 내년에 170억 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 규모

구분	2017 예산(안)		2016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17000	100	15000	100	2000	13.3
제주시	10200	60	9000	60	1200	13.3
서귀포시	6800	40	6000	40	800	13.3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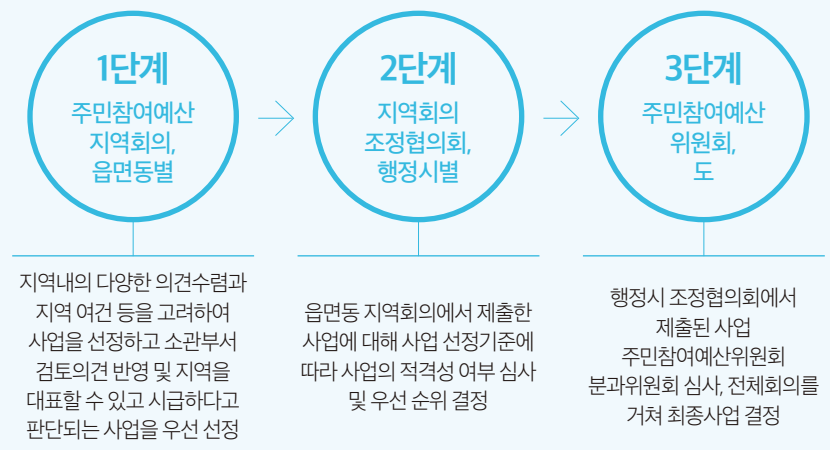
획일적 예산 배정, 사업발굴 자율성 저해는 문제점

2013년도에 처음 시행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행 5년을 경과하며 예산편성권을 주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예산편성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등의 제고는 물론 정책의 상향적 결정인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읍·면·동별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예산 배정 및 편성기준에 따라 사업발굴의 자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의 취지가 감소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편성절차를 거치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사업에 대하여 재차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복 심의가 되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또한 주민의 의견을 달리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역할 분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단계별 추진절차 |



| 주민 의견수렴 및 예산편성 내역 |

구분	지역회의 의견수렴		부적격 사업				최종 선정결과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비율(%)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계	285	17,000	0	0	0	0	285	17,000
제주시	156	10,200	0	0	0	0	156	10,200
서귀포시	129	6,800	0	0	0	0	129	6,800

(단위 : 백만원, %)

‘주민요구예산’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의 변화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시스템 구축

글 박근식 / 제주시 연동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참여예산은 예산을 결정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다.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법에 의해 주민참여예산이 강행되었지만, 조례 제정이 지연되어 2013년 처음 시행된 후 2017년 5년째를 맞고 있다. 2013년 운영 첫해부터 2015년까지 주민참여예산은 132억 원이었고, 2016년은 150억 원, 그리고 2017년은 170억 원 규모로 늘어난다.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2015년까지는 읍·면은 5억 원, 동은 2~4억 원, 인구 3만 이상 동지역은 4억 원을 배정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읍·면은 2억 원, 동은 1억 원을 기본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예산액은 지역회의에서 우수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을 배정하였다. 이러한 운영방식의 변화는 기존 나눠주기식 예산배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며, 우수 사업을 제안한 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취지이다. 여기에 더해 2016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부여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은 참여가 늘고 있고, 지역에 특화된 사업들이 제안되고 있어 점차 정착되고 있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

우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과정 전반에 주민의 참여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이나, 현재의 주민참여예산은 일정 규모로 배분된 예산의 한도액 내에서만 주민이 참여하고 경쟁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주민참여예산 규모이다. 어떤 사람들은 제주도 예산이 4조 원 시대를 열었는데 150억 원의 주민참여예산은 터무니없다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비 등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2016년 6,941억 원이고, 2017년은 8,833억 원이다. 전체 예산이 아닌 가용재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주민참여예산 비율이 높아 지긴 하지만, 현재의 2% 정도 되는 비율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

세 번째는 제도 도입 전부터 지적돼온 주민대표성 문제이다. 사업이 제안되고 1차적으로 걸러지는 지역회의의 참여자가 해당 지역의 실질적 의사결정 대표자인가 하는 문제이다. 또한 지역회의가 주중에 개최되고 있어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참여가 어렵다는 점에서 주민대표성은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소위 ‘꺼리’가 없다는 문제이다. 현재의 규정이 시설비 70% 이상을 정하고 있고, 실제 80% 이상 시설비로 편성되고 있는 점은 제안할만한 사업 아이디어가 다양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주민의 숙원과제보다는 행정기관의 과제나 아이디어를 차용하여 다듬는 수준에서 제안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신청된 사업 총액도 주민참여예산과 큰 차이가 없어 경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마지막으로 선정된 사업이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지역의 후순위 또는 추가적인 사업으로 대체되는 문제이다. 대체된 사업들은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들은 불용처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불용처리를 원칙으로 할 경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불용과 대체를 결정하는 기준이 요구된다.

이상에서처럼 여러 문제를 나열하면 마치 주민참여예산이 의미 없는 제도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는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다.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조례가 없거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정도의 임의 규정으로 운용되는 지역이 133개에 달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이와 관련된 세부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 지역은 70개에 불과하다. 제주도는 이 70개 지역 중 가장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이다.

제주도의 주민참여예산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희망하지만, 주민참여

참여형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시스템(가칭)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산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공직자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고, 의사결정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제도의 범위 내에서 꾸준히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다듬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제주도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개선방안 하나를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샤이(Shy) 트럼프'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누군가를 지지하거나 본인이 주장하는 바가 있지만, 주위의 평판과 비난이 두려워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것을 빗댄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많다. 예산을 통해 해결되기 바라는 것이 있지만, 지역의 원로나 자생단체들과의 의견조율이 귀찮아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사업제안 방식의 문제도 있다. 현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사업제안창구"에 접수하는 방식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그리고 정치적 소수자인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접근성이 떨어지는 방식이다. 제안된 사업들도 독

창적이길 바라지만 사실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나오기 어렵다. 모방은 창조의 시작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참고하여 해당 지역에 맞는 아이디어로 다듬거나, 더 나은 아이디어로 발전시킬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형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시스템(가칭)'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고, 그 아이디어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고할 수 있으며, 심의의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온라인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소극적 의사 표시자 참여를 확대하고,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참여가 가능하며, 학생들의 어설픈 아이디어도 참신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은 앞장 선 '주민'뿐만 아니라 앞장서지 못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주민 요구예산'으로 비춰지는 현실에서 한층 발전된 '주민참여예산'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疏通

제주 바로보기 ❶

관광객 1,500만 명 시대, 도민의 실제 체감도는?

글 고혜영 / 한국은행 제주본부 기획금융팀



양적성장을 넘어 관광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9월 신용카드 이용실적 분석결과 | 한국은행 제주본부

지역별 관광객 지출현황

내국인 관광객	전체지출액의 30% → 용담이동/연동
외국인 관광객	전체지출액의 50% → 연동/색달동

업종별 관광객 소비현황

내국인 관광객	전체지출액의 45%
외국인 관광객	전체지출액의 56%
} 쇼핑 (면세점과 대형할인점에 편중)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2010년 이후 연평균 13%씩 증가해 2013년에는 1,000만 명을 돌파했다. 금년에는 최단기인 8월에 이미 1,000만 명을 돌파해 연말까지 1,5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광객 소비로 벌어들인 관광수입도 빠르게 증가해 2015년에는 제주지역 총 매출액의 17%에 달하는 4조 7천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로 인한 부가가치도 제주지역 총 부가가치의 11.8%인 1.6조 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광객 급증세에도 불구하고 도내에서 관광객 특수라는 말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관광객 증가로 인한 교통난, 쓰레기, 하수문제 등은 나날이 가중되는 데 반해 편익은 크지 않다는 지적까지 오히려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 이유로는 우선 관광객의 지출이 일부 지역과 업종에 크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지난 9월 관광객의 신용카드 이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내국인 관광객은 용담이동과 연동에, 외국인 연동과 색달동에 각각 전체 지출액의 30%, 50%가 넘는 금액을 지출하고 있었다. 또한 지출액을 업종별로 보면 내국인 관광객은 45%, 외국인 관광객은 56%에 이르는 금액을 쇼핑에 할애하고 있었으며, 이마저도 절반 이상이 면세점과 대형할인점에 대한 소비였다. 즉, 도내 일부 지역에 위치한 대형 사업체들이 관광객 증가로 인한 특수를 가장 크게 누리고 있으며, 이익의 일부는 본사 소재지인 도외로 흘러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관광객 수가 느는 것만큼 관광객의 지출 금액이 이에 상응해 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최근 제주여행상

품은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시장을 통한 판매가 크게 확대되면서 할인 판매가 급증하고 동종업체간의 과다경쟁도 심화됐다. 이에 따라 온라인 여행업계와 경쟁관계에 놓인 도내 여행중개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된 것은 물론 2015년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액도 2010년에 비해 불과 2만 4천원 증가하는데 그치는 등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는 관광객으로 인한 부가가치가 임금 등 도민 소득으로 충분히 분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015년 관광산업 부가가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2010년에 비해 기업 내 영업이익 비중은 늘어난 데 반해 종업원 인건비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관광수입이 도민들의 임금상승으로 직결되지 못하면서 지역 소비 확대를 제약할 수도 있다.

제주 관광산업이 제주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임은 분명하다. 다만 관광수입이 지역경제성장으로 원활하게 이어지려면 최근의 양적성장을 넘어 관광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마을 단위의 역사와 풍속을 스토리화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지역특산물 판매와 연계하는 등 지역 고유의 관광상품을 도입하는 한편 대중교통시스템을 보완 및 확충해 마을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편 가격담합 등 시장을 교란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경영여건이 열악한 업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실시해 관광상품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아울러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으로 도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관광,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글 서용건 /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2010년대 들어 제주도는 관광객과 상주인구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면서 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이와 함께 교통체증, 범죄 증가, 환경오염,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의 부정적 측면도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지하듯이 2012년 이후 한국 경제는 저성장 시대로 진입했고, 2018년 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 중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가 되면서부터는 경제의 활력성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의 어두운 경제 상황과 전망과는 달리 제주는 5%대의 경제 성장률과 함께 증가하는 인구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대폭 확충해야 할 실정이다.

이에 관광적 측면과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성장관리정책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 됐다. 지속가능성은 성장관리의 핵심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관광은 지역의 관광이 환경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 지역의 환경 및 문화 자원이 유지되며 동시에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관광이라고 할 수 있다. 각 분야별 구체적인 관리지표는 다음 표와 같다.

|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관리지표 |

부 문	핵심과제	세부지표
환경적 지속가능성	생태계 보전	자연보호구역 지정
		동식물 다양성
		쓰레기 관리 및 재활용
		생태관광 해설프로그램
	제도	탄소저감 시스템 구축
		친환경 경영제도 도입
		친환경 교통수단 시스템 구축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경관 심의 및 청결유지
		관광객 수용력 관리체계 구축
	자원 관리	수자원 관리
		신재생 에너지 활용
		자연 휴식년제 시행
		토지이용 계획 수립 및 실행
경제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편익	관광객 수
		관광객 1인당 지출 / 관광수입
		관광객 체류 일수
		투자 대비 기대수익 달성 가능성
		실제적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 고용	지역주민 고용 비율
		관광업체 총 종사원 수와 정규직 수
		관광 종사원 교육 및 복지 수준
	연관산업 파급효과	항공, 선박 접근 편의성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관광 상품 및 관광지 다양성
		관광 인프라 및 사회 서비스 기여도
사회문화적 지속가능성	주민 생활	치안 및 안전 수준
		인구 유입/유출 정도
		사회적 약자 관광 이용 편의성
		사회적 약자 고용 수준
		지역주민 삶의 질
	주민 참여	관광객 주민 간 이해 수준
		관광개발 시 지역주민 참여도
		관광개발에 따른 갈등 관리
	전통 문화 유지	지역문화 및 자원 보존
		지역문화 체험 및 만족도
		지역문화 해설 프로그램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천하는데 장애요인으로서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낮은 이해/다른 인식, 체계적/장기적/통합적인 계획의 부재 및 협업의 부족/부재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부문의 성장관리정책(Growth management policy)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가칭 지속가능한 관광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제시한 지표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이 계획의 틀 안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관광은 장기적인 목표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일회성의 수용력 조사와 같은 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중심의 관광(Community-based tourism)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일본 규슈 오이타현의 대규모 온천 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진 벳푸시와 대비되는 근처의 유후인 마을이 좋은 사례이다. 개성을 추구하고 휴양·휴식을 원하는 도시인들에게 관광단지 내 호텔리조트보다 고즈넉한 시골 마을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이유이다. 아울러 관광객들이 방문 지역에서 지역 생산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필자가 최근 출장을 간 일본 동북지방의 센다이 시 공항의 내부는 특산물 판매 박람회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지역 특산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어 매우 인상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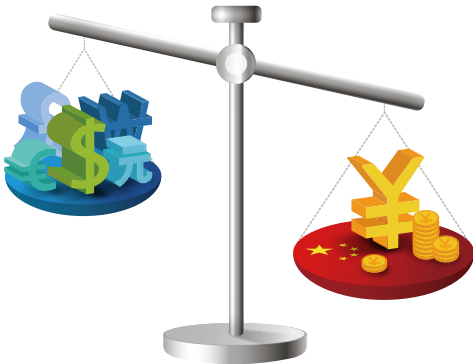
끝으로, 획기적인 녹색도시정책(Green city policy)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2030년 탄소제로의 섬도 결국 자동차 위주의 정책이다. 자동차를 타지 않고 도보와 자전거,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유럽 선진국의 자전거 수단 부담률은 최소 20% 이상, 일본은 17%인데 반해 한국은 2%를 나타내고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시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자전거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삼고 있으며 자전거 정책이 시의 매우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이다. 코펜하겐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지역주민들처럼 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둘러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제주가 지속가능한 관광의 선진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도민의 인식 전환과 노력이 필요하다.

| 일본 센다이 공항 내 지역특산물 판매 사례 |



중국자본의 유입과 제주관광

글 고승익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마케팅국장



2012년에 제주도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이 1백만 명을 넘어서면서부터 중국인 자본의 도내 유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사실 제주는 지역의 산업구조가 1차산업 17%, 2차산업 3%, 3차산업 80% 등 2차산업의 비중이 너무 낮고 1차산업의 비중이 우리나라 평균에 비해 10% 이상 높은 비정상적인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제주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은 관광을 중심으로 하는 3차산업의 진흥에 매진하는 방법을 떠나서 다른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제주도는 1970년대 이후 수십 년 동안 관광객 1천만 명을 유치하는 메가투어리즘 시대를 학수고대 해왔다. 그러는 가운데 2012년에 내국인 관광객의 꾸준한 증가와 중국인 관광객의 확충에 힘입어 관광객 1천만 명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금년에는 관광객 1,500만 명 시대가 확실하게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는 교통, 쓰레기, 주차, 하수처리 등에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관광객의 증가와 이에 동반하고 있는 외부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는 문제를 가져왔다.

2016년 현재의 중국인 관광객 3백만 명 유치는 그 수에 비례하여 그만큼 중국자본의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 자본은 중국인 관광객의 투숙과 식사 제공, 오락과 쇼핑 등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측면에서 유입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우리 제주도가 중국 땅이 되고 있다는 걱정의 소리들이 들리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필자는 현재 제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 자본의 유입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여 현물에 투자되는 자본인 만큼



주식이나 채권을 쫓아서 단기 투자를 하는 악성 외국자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가 이들 자본을 슬기롭게 잘 활용할 경우 장기적인 측면에서 제주도의 성장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제주관광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제주도의 외국인 관광객 시장은 일본인 관광객에 크게 의존했다. 그렇지만 일본인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일본자본의 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2013년부터 일본인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관련 사업장의 붕괴에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제주도는 비정상적인 중국의 투기자본이 제주도에 들어오는 것은 분명하게 차단시켜야 하지만, 정상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에 투자하는 건전한 유입자본에 대해서는 제주지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

이 세상의 모든 자본은 생물과 같아서 투자에 따른 이윤을 쫓아서 움직여 다닌다. 현재 중국자본이 제주도에 유입되는 것은 그만큼 제주도가 중국자본 입장에서 보았을 때 투자가치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고, 만약에 투자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다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자본의 속성이라고 보면 된다.

제주도는 역사상 처음 찾아온 중국자본의 유입이라는 경제적인 호기를 잘 활용하여야 한다. 즉, 정상적인 외국 자본의 유입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으며 이들 자본이 지역개발에 이바지하고 제주도라는 청정환경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국자본이 제주경제의 건전성을 해칠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의 차단이 필요하며, 외국자본의 토지 소유 총량제 도입 검토도 하나의 방법이다.

疏通

생물종다양성과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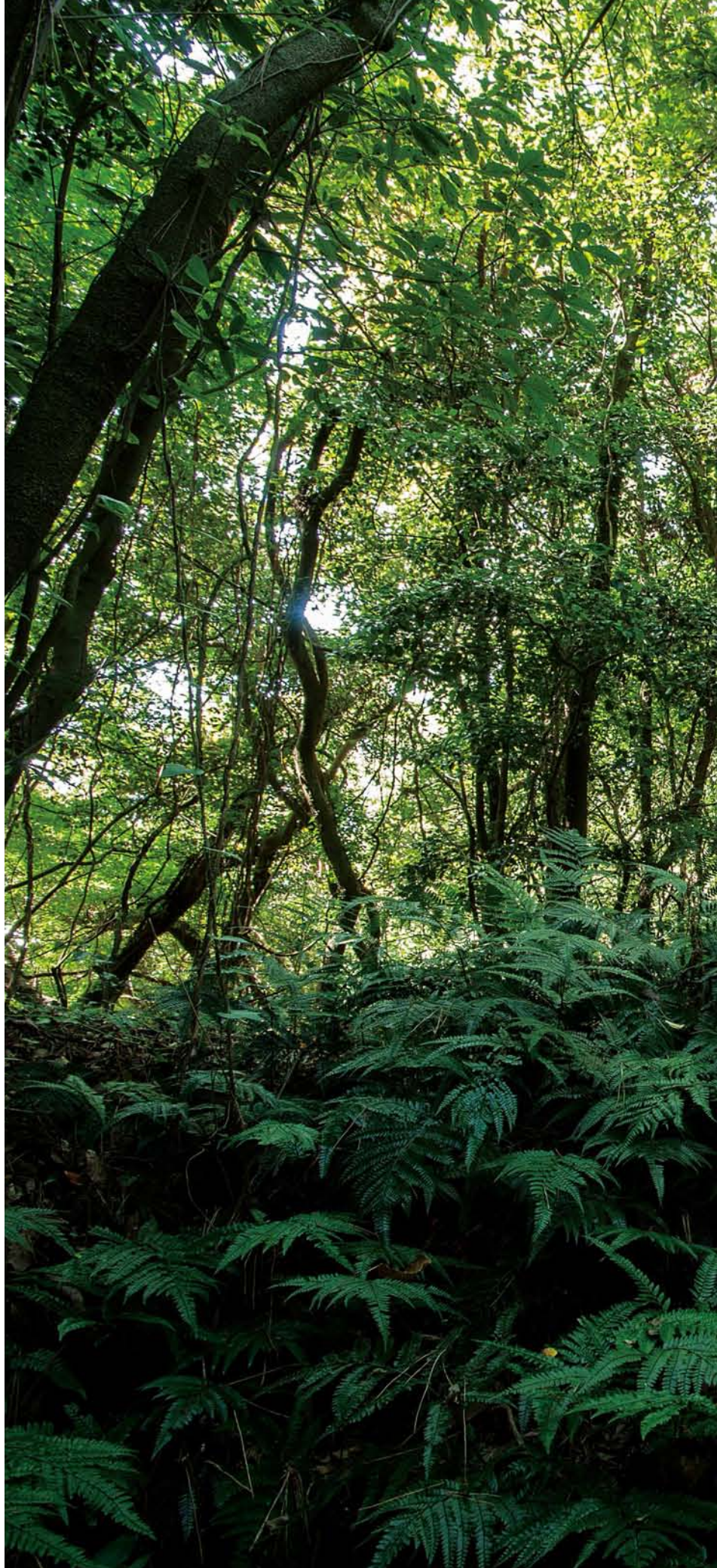
생물다양성의 의미와 가치

글 김창숙 /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장



생물다양성은 수많은 생물체와 그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 그들의 주변 환경 생태계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생태계의 일부 이기에 자연을 이용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생태계의 최종 소비자의 위치에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질들을 다른 생물체로부터 얻어 쓰고 있다.

생물다양성은 인류에게 음식물과 의약품 및 산업용 원료 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대기와 물, 기후를 조절하고 정화하는 환경서비스 기능과 정서적 안정과 휴식 같은 문화서비스의 기능을 가져다준다. 또한 생물다양성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엄청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아스피린, 타이플루, 탁솔, 항생제 등 의약품의 46%가 동식물에서 추출한 물질에서 유래된 것처럼 21세기 유망 산업인 바이오산업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듯 생물다양성은 공기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존을 위해 불가결한 요소이지만,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산업화에 따른 자연생태계 파괴로 크게 위협받고 있다. 도시화, 산업화 등의 개발과 오염으로 인해 수많은 생물체가 사라지고 있는데, 서식지 감소, 외래종 유입, 환경오염, 인구증가, 과다 수확 등이 주요 원인이다.

기후변화도 큰 문제이다. 온난화가 계속되어 지구의 온도가 지금보다 1°C 상승하면 양서류가 모두 멸종하고, 2~3°C 오르면 지구상의 생물의 20~30%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많은 나라에서는 자국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 유엔에서도 매년 5월 22일을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로 지정해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제주도는 세계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됨은 물론 9,700여 종의 생물체가 서식하는 종 다양성의 보고(寶庫)이다. 제주도는 자연과 공존하는 세계적인 청정 환경도시를 꿈꾸는 한편, 다양한 원료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천연 화장품산업 중심의 건강뷰티생물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제주 생물자원의 관리체계도 마련하고 있다. 제주 특화 생물다양성의 가치 극대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자연생태계 보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생물다양성들도 크게 위협받고 있다. 한라산의 구상나무 숲이 사라지고 있고, 물장군, 애기뿔소똥구리 등을 쉽게 찾아보기가 힘들다. 제주 자연을 대표하는 꽃자왈이 자본과 개발에 휩싸여 위협받고 있고, 조릿대의 확산으로 인해 한라산 고유의 생물종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다.





제주 바다 역시 수온 상승으로 생물종들이 크게 바뀌고 있다. 필리핀, 대만, 오키나와 연안에 주로 서식하던 청줄돔, 철갑둥어 같은 어류들이 제주 연안에 정착해 살고 있다. 아열대성 어류가 전체 어류의 약 5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해양생태계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존재이기에 제주의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생명력이자 미래이다. 제주는 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자연과 인간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야만 한다.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더욱 필요한 때이다.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창조 의정

2017 트ренд 제주

김난도 서울대 교수가 10월 31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트ренд 코리아 2017' 출판 간담회에서 2017년 키워드로 '치킨 런'(CHICKEN RUN)을 제시했다. '치킨 런'은 10개 소비 트렌드의 영문 앞 글자를 조합한 것이다.

자가지향적인 트렌드가 강세를 이어간다는 예측이다. 과연 그럴까.

2017년 제주, 우리는 어떤 모습의 제주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드림제주21 편집팀에서는 새해를 준비하며, '2017 트렌드 제주'를 생각해 본다. 제4차 산업혁명과 교육, 빅데이터로 만드는 세상, 기후변화와 에너지 시장 재편을 우선 꼽았다. 특히 제주에 대해서는 10조 원을 훌쩍 넘는 가계대출과 '지방자치가 답'을 언급한다.

CHICKEN RUN

C'mon, YOLO! | 인생은 한번뿐 순간에 충실하자
Heading to 'B+Premium' | 새로운 가치를 입혀라
I am the 'Pick-me' | 한국 20대 '픽미세대'
'Calm-Tech', Felt but not seen | 기술은 은밀할수록 편안해진다
Key to Success: Sales | 영업의 시대가 온다
Era of 'Aloners' | 이코노미가 아니라 '일(1)코노미'
No Give up, No Live up | 버려야 산다. 바이바이 센세이션
Rebuilding Consumertopia | 소비자가 만드는 수요중심시장
User Experience Matters | 경험 is 원동
No one backs you up | 각자도생의 시대

제4차 산업혁명과 교육혁명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경제학 박사)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에서 칸막이식 사고의 틀을 벗어나 다양한 생태계를 포용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람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용, 존중, 배려와 연민을 키워나가기 위해 지역적, 국가적 차원의 협력이 필요한 시대다.

데이터가 세상을 만든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상품구입에서 SNS 등이 PC나 모바일을 통해 이뤄지며 데이터는 증가하고 있다. 빅데이터는 기업의 가치창출에서 국가의 정책결정에 이르기까지 혁신적인 문제해결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10조원 넘은 제주 가계대출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8월 제주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서 8월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10조 1,764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시장 재편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으로 에너지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전기차의 리튬이온 전지도 에너지 저장장치로 재활용된다.

지방자치가 답이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중앙집권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최순실 사태라는 난관을 버텨낼 수 있을까? 지방자치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것만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낼 수 있는 힘이다. 부활 25년의 연륜을 가진 지방자치가 새로운 희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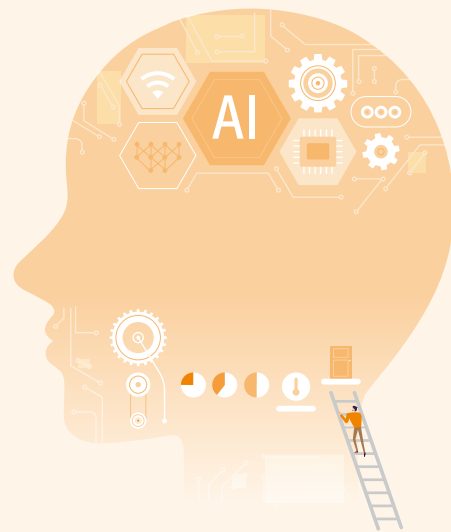
創造

2017 트렌드 제주 ❶



인공지능(AI) 시대, 독서교육이 답이다

글 김종식 / 제주고등학교 교장, 수필가



“제4차 산업혁명은 국가의 발전과 기업의 가치 창출, 심지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 말은 「제4차 산업혁명」의 저자 클라우스 슈밥이 한국 독자들에게 한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기 위해 과학은 물론 경제, 문화, 행정,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지금까지와 다른 혁명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미래의 주인공들을 길러내야 하는 학교에서는 그 필요성이 더 간절하다. 지금 입학하는 초등학생들이 사회에 나아갈 때쯤이면 70%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근 일본 국립정보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도로보군(東ロボくん)이 한국의 수능시험과 비슷한 대학입시센터시험의 결과, 도전 4번째인 금년에도 57.1점(950점 만점에 525점)으로 도교대에 입학할 수 없는 점수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도로보군은 대량의 정보를 활용해 답을 찾아내는 세계사와 수학에서 좋은 성적을 보였지만 언어를 종합적으로 이해해 해답을 찾는 국어(일본어)와 영어에서 한계를 보였다. 인공지능의 장점과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수학 등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산업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제4차 산업혁명의 꽃, 인공지능 시대에 학교가 걸어 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우리 아이들이 인공지능 시대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무엇에 중점을 두고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일까? ‘인간 vs 인공지능’의 대결에서 인간이 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것일까?

그 정답은 인성과 창의성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독서교육이

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독서교육은 인성과 창의성은 물론 감성과 상상력까지 키워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독서는 상상력과 통찰력을 키워주면서 동시에 감성능력까지 키워주는 삶의 도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의 본질이 우리 아이들이 미래사회에 살아갈 능력을 배양해 주는 것에 있다면, 학교는 인공지능 시대와 변화된 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재 필요한 교육이 아니라 미래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인공지능 시대에서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이 바뀌어야 한다. 하루빨리 교사 중심의 문제풀이식 정답찾기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의 인성과 창의성 교육으로 가야 한다.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대학입시 위주의 경쟁교육에서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인성과 감성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 핵심이 바로 독서교육이다. 학교에서 과감히 지식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우리 아이들이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과 남을 배려하는 심성, 감성과 사회성을 키워줘야 한다. 이런 점에서 독서교육이 학교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생물학자 찰스 다윈은 「진화론」에서 강하고 똑똑한 종(種)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잘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학교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자신의 삶을 채길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줘야 한다. 그것이 바로 독서교육이고 학교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문명전환기인 지금, 독서교육이 인공지능 시대를 넘어서는 지름길이고, 학교교육의 정답이라 생각한다.



지방자치, 주민 행복 위한 미래를 꿈꾸다

글 송정복 /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

지방자치 강화는 시대정신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성난 민심이 헌정사상 최대 규모를 갈아치우며 촛불로 타오르고 있다. 대통령 탄핵과 함께 특검이 진행되고 있다. 왜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 정치권은 대권을 잡기위한 정쟁에 매몰되고, 권력 주변으로 이권을 둘러싼 로비와 다툼,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 이원집정부제나 4년 중임제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정부형태 개편을 통한 중앙차원의 권력배분만으로는 앞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에는 근본적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¹⁾

당면한 정치적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배분하는 지방분권, 국가 기능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지방분권을 통해 주민의 요구에 부응한 생활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별 특성에 기초한 내생적 발전전략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지방자치부활 20여 년의 성과와 한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48년 제헌헌법에 명시됐으나 87년 민주화 항쟁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출발했다. 1991년 지방의회,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직선제로 선출되면서 온전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

고난의 과정을 거쳐 부활한 지방자치는 많은 우려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무엇보다 주민의 손에 의해 지역 대표를 선출하면서 통치와 계몽의 대상에 머물렀던 국민이 행정의 주인으로 거듭났다. 일상적 삶과 관련된 다양한 복지정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지역에서 성과를 거둔 혁신적인 정책들은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수용되어 국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속적인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년이 지난 지방자치는 여전히 중



양정부가 정해 놓은 틀 속에서 수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서울시나 성남시의 청년수당을 둘러싼 보건복지부와와의 갈등은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 고유사무인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조차 중앙부처의 허락을 얻어야만 가능하다는 현실을 일깨워 주었다. 재정분야의 지방자치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8대2 구조이다. 그런데 국가 총 재정지출액 중 60%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행된다. 권한은 중앙정부가 가지면서 사무만 지방으로 떠넘기는 셈이다. 지방자치의 근본적 구조혁신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한 이유다.²⁾

지방자치가 바뀌고 있다.

2할의 지방자치라는 한계의 벽에 가로막혀 있지만 지방자치는 조금씩 변화를 거듭해 왔다. 특히, 2010년 출범한 민선5기부터 질적인 변화를 꾀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세수가 줄고, 이명박 정부의 지방세 감세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이 가중됐다. 그러자 민선5기부터 지방자치단체는 대규모 시설확충보다는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토론하며 자기 지역만의 해법을 찾아내고자 노력했다. 덕분에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사회적 경제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체계 혁신과 행정개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사례들을 만들어 냈다. 민선5기에 뿌려진 혁신의 씨앗들은 민선6기를 지나며 더욱 자라나고 있다.³⁾

광주 광산구나 서울 은평구는 주민참여기본조례를 통해 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의 각 단계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화하는 것은 기본이며, 시민창안대회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민계획단을 통해 시정계획이나 마을 단위 계획을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선택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는 동 주민센터의 기능을 대폭 개편하여 모든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했는데, 보건복지부는 이 모델을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을 꾀하고 있다.

완주군은 중앙 부처별로 산재한 사업들을 모아 커뮤니티비즈니스로 통합하고 로컬푸드를 통해 지역순환경제의 모델을 보여주었다. 영세 중소농 중심의 로컬푸드 정책은 대농위주의 정부정책 방향까지 변화시켰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

올해는 고도의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고자 했던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0년째다. 관광객 급증, 인구 10만 명 이상 유입, 지역총생산(GRDP) 증가 등 경제적 규모는 커졌지만 주택·교통·쓰레기대란,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등과 함께 주민자치가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국제자유도시를 향한 기반은 조성했는지 몰라도 4,537건의 국가권한을 파격적으로 이양했던 지방분권은 주민자치로 이어지지 못했다.

앞서 소개한 사례들처럼 최근 지방자치의 가장 큰 변화는 행정중심에서 주민중심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서울 종로구의 '행복이끄미'는 주민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기획하며 정책의 변화까지 만들어 간다.⁴⁾ 이러한 변화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행정이 자신의 역할을 정책주도자에서 정책조력자로 변화할 때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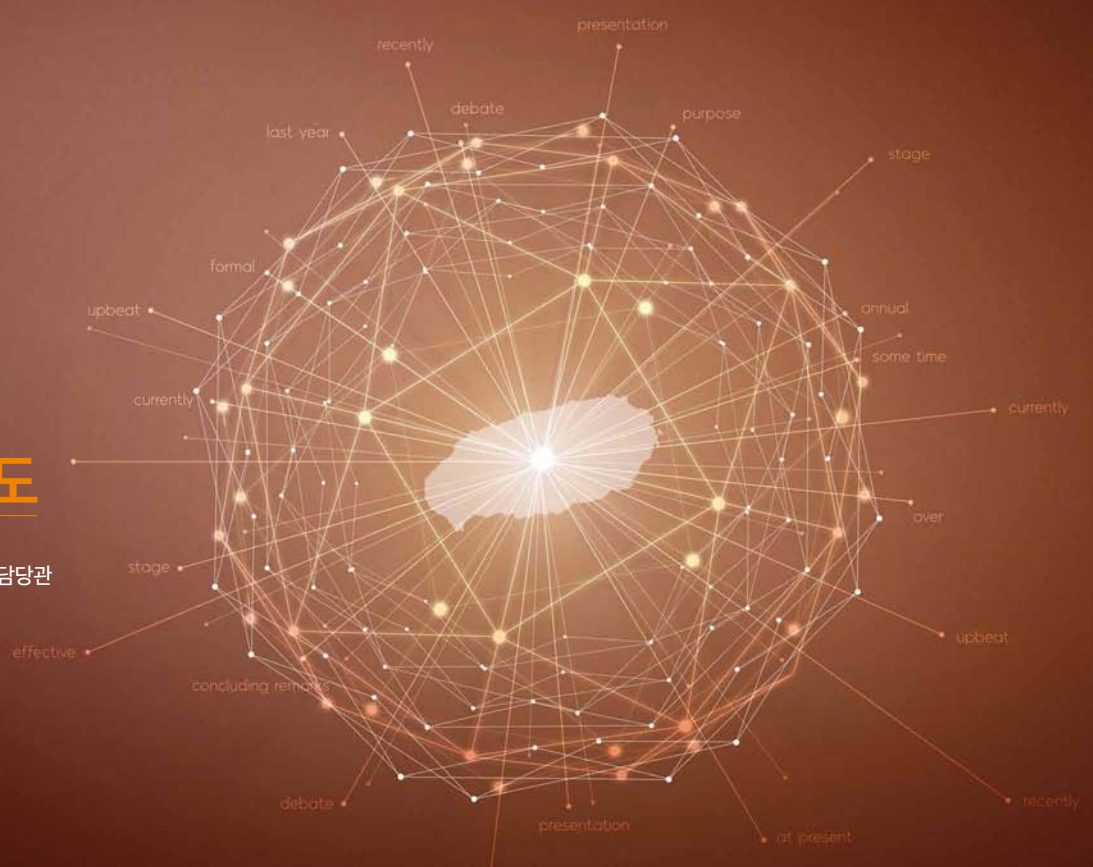
지난 10년간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 10년은 주민자치에 중점을 두고 주민행복을 위한 제주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



1. 전혜정, "4년중임제·이원집정부제·내각제의 장단점", 『뉴스시』 2016년 10월 24일
2. 오동석(2016), "지방분권개헌안의 주요 쟁점과 방향", 『국민광장 제11호』 pp26-33
3. 윤석인(2014),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 희망제작소
4. 인은숙, "행복, 주민의 언어로 말하고 정책으로 풀어가기", <http://www.makehope.org/?p=27990>

빅데이터와 제주특별자치도

글 노희섭 /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융합담당관



빅데이터: 사회와 산업의 기반기술이자 개념

2015년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 회장은 “세상은 지금 IT(정보기술) 시대에서 DT(데이터 기술) 시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IT시대가 자기 제어와 자기관리를 위주로 한다면, DT시대는 대중 서비스와 생산력 촉발을 위주로 한다. 양자 사이에는 특정한 기술적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고관념 측면의 차이임을 명시하며, 미래의 경쟁력은 갖고 있는 데이터로 사회에 얼마나 많은 가치를 창출하느냐와 인재와 혁신가치를 둘러싼 경쟁이 주가 될 것이라 이야기했다.

가트너는 매년 신기술의 시장 안착 전망을 발표하는데, 2015년 발표한 2016년의 전망에는 수년간 주요 기술로 지정됐던 빅데이터 기술이 제외됐다. 당연히 빅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시장은 큰 혼란에 쌓였으며, 더 이상 빅데이터에 대한 투자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냐에 대해 크게 술렁였다. 이에 대해 가트너는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빅데이터는 하나의 기술 트렌드나 프로젝트가 아닌 IT 전반에 녹아 있는 공기와 같은 기술이다. 대부분의 IT 개별 기술에 이미 빅데이터가 포함되어 있거나, 관련 기술이 복합적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는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프로젝트가 아닌 광범위한 정보 전략 안에 포함되는 전략적 접근의 형태이며 빅데이터라는 용어는 점차 사라질 것이다.”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과 가트너의 발언에는 공통적인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빅데이터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개별적으로 취급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창출과 산업 발전을 위해 필수 기반 기술과 개념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빅데이터 시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가격 하락, 데이터의 가격 상승

오랫동안 데이터는 정보(Information)를 만들어 내기 위해 사용되는 재료일 뿐이며, 운영비용을 가중시키는 대상으로 취급돼왔다. 저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의 투자/운영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며,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에 다른 고가의 하드웨어와 솔루션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는 정보 생산 이후에 삭제/제거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취급됐으며 정보 생산과 관련 없는 데이터들은 생산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빅데이터가 대중에게 다가가고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데에는 기술 혁신이 큰 기여를 했다. 전 세계의 개발자들이 소스 코드를 기부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무료로 가까운 솔루션들이 공개 소프트웨어(Open source sw)로 등장해 과거와는 다르게 저렴한 비용으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됐다. 기술 발전에 의한 하드웨어 가격의 하락 역시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성에 들어가는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시켜줬다.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결과적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가격은 계속해서 저렴해지고 데이터의 가치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예를 들자면, 구글(Google)은 오랜 시간동안 막대한 투자비를 투입해 개발해왔던 인공지능 학습 프레임워크인 텐서-플로우(Tensor-Flow)를 무료로 개방했다. 방대한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 구글로서는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개방하고 데이터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전략이 더 타당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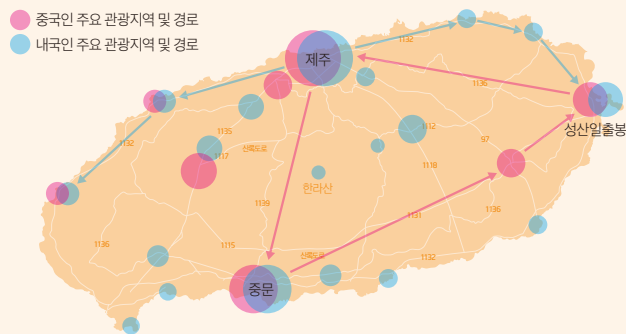
빅데이터 영역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Ownership)이 매우 중요하다.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한 기반 투자는 기업 입장에서 매우 큰 부담요소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높은 데이터는 고가로 거래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산업계에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는 리스크이다. 이에 따라 공공영역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공공 데이터를 생산해 산업계와 민간에 제공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빅데이터: 무엇이 필요한가?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상주 인구나 유동 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교통, 쓰레기, 환경, 에너지, 부동산 등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빅데이터를 활용한 ICT기술로 접근해 풀어보자는 도민들의 제안과 관심이 많다.

하지만 빅데이터를 문제 해결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사항들이 꽤 많다. 사실상 모든 지자체들이 마찬가지이겠지만, 데이터의 생산과 활용에 대해 충분한 준비를 못 해온 것은 사실이다.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의 식별과 생산 전략이 필요하다. 데이터 기반의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관련된 원천 데이터(Raw Data)다. 제주도 내의 데이터들은 대부분 저장 관리되지 않고 특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소멸되고 있다. 다음은 제주도 내의 공공 wifi에 접속했던 관광객들의 일부 데이터들을 분석한 자료이다. 관광 영역에서 FIT가 증가하고 있고, 관광객의 동선들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었지만 관련된 데이터들의 확보와 분석은 전무했었다. 버려지던 wifi 접속 데이터를 활용하면 다음과 같이 관광객의 주요 이동 동선이나, 체류 지역 등을 시각적으로 분석해 낼 수 있다. 데이터의 가치가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레벨에서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생산하고 공공 데이터로써 활용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관광객의 wifi 접속 데이터를 분석하여 얻은 이동경로 분석결과〉

둘째, 데이터의 관리/분석/활용에 대한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가 없다면 단순히 저장 공간을 차지하는 쓰레기(Garbage)가 되어버린다. 지속가능한 빅데이터의 운용을 위해서는 행정 레벨에서의 데이터에 대한 종합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구

축되어 운영되어야 하며, 문제 발굴로부터 정책/시책 개발에까지 연결되는 총괄적인 업무프로세스가 설계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데이터의 저장과 분석을 위한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한다. 데이터가 생산되면 그것을 저장하고 분석하기 위한 하드웨어가 필요하다. 공공영역에서 문제해결 및 정책 설계를 위해서는 범용의 빅데이터 시스템이 필요하며, 구축된 데이터 거버넌스에 의해 시스템이 활용되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는 2016년 12월 기준으로 128 테라바이트 급의 데이터 수집과 저장, 분석에 대한 기초 시스템 구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스마트 관광 등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준비 작업 중이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전문 인력들이 양성되어야 한다. 아쉽게도 제주도에 내 빅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업과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 내에서 빅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과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면 빅데이터의 활용 측면에서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지역 내 대학에서 오픈 소스와 빅데이터에 대한 커리큘럼들을 강화하고 빅데이터 전문 기업들을 육성해야 한다. 공공 영역에 빅데이터 기반의 정책을 고민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전문성의 확보도 당연히 필요하다. 이러한 도내 인력 양성은 지금 시점에서도 많이 늦은 상태로 보인다.

빅데이터 시대의 지자체: 데이터 자치권을 가진 데이터 생산 주체

원천 데이터의 모순어법(Raw Data's Oxymoron)이라는 말이 있다.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해서는 원천 데이터(Raw Data)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지만, 원천 데이터가 충분히 존재하지 않거나, 권한 등의 이슈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실제로 문제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 소유의 데이터들을 지자체가 활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중앙부처에서 개인정보보호나 개인재산권보호 명목으로 지자체에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의 비식별화와 데이터 일부의 제거를 통해 충분히 활용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생길 불상사 때문에 자유로운 데이터 활용은 지지부진하다.

광범위한 분야에 빅데이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데이터 자치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생산하고 데이터의 소유권을 가지며 정책과 산업육성에 활용하기 위한 고민들은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현실이지만, 더 늦기 전에 지자체 레벨의 데이터 생산과 데이터 자치권에 대한 전략을 고민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뉴미디어와 문화, 컴퓨터 공학과 빅데이터를 오랫동안 연구해 왔던 뉴욕대학의 Lev Manovitch 박사는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 생산 주체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Data [do] not just exist, They have to be generated.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데이터는 생산되어야 하는 것이다.)”

創造

2017 트렌드 제주 ④



충청북도청연구단지 신재주 도로

도청	아라 Ara
경찰청	정실 Jeongshil
도의회	도의회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

글 이기우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대가 무너지고 신뢰를 배반당한 분노한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합성을 지르고 있다. 세월호 사태 이후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묻고 있다. 이는 “이게 헌법이나”라는 말이 된다. 왜냐하면 나라는 헌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토플러는 이미 2001년에 대한민국을 위한 보고서(위기를 넘어, 21세기 한국의 비전)를 내면서 이러한 위기를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한국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다. 그 선택은 모든 한국인뿐만 아니라 향후 수십 년 동안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인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타인에 의해 선택을 강요받을 것이다. 선택은 다음 아님... 종속국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선도국가로 남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선택은 반드시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는 한국의 중앙집권적인 관료시스템은 산업화시대에는 작동할 수 있는 체제이지 세계화되고 지식정보사회에서는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국가운영체제라고 하면서 정치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했다. 이미 15년 전에 헌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한 것이다.

지금 겪고 있는 대한민국 위기의 본질은 토플러가 정확하게 지적한 것처럼 중앙집권적인 권력집중이다. 지방의 손발을 묶어놓고 중앙정부에 권력을 집중시키고, 그것도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시킨 헌법체제가 문제이다. 제왕적 대통령은 과부하로 인해 어느 한 가지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기능마비 상태에 빠진다. 권력의 집중으로 인해 실세들의 부패가 횡행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승자독식의 권력체제는 여당과 야당

이 서로 발목을 잡는 대결정치로 갈등을 증폭시키고 국가를 작동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분권적 헌법개정이 요구된다. 수직적으로는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전환하고, 수평적으로는 독임적 권력구조에서 합의제 권력구조로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10년 전 제주도에서라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먼저 실현하여 분권특별자치도를 도입하려고 했다. 외교와 국방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주도의 자율에 맡기려는 일국양체제의 구상은 헌법의 벽에 가로막혀 용두사미로 그치고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용을 그리다가 미꾸라지를 그린 것이다. 그나마 다른 지방보다 한걸음 앞선 차등적인 분권을 통해 제주도는 다른 지방이 모두 불황으로 침체한 지금 그래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제주도 분권특별자치도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지방분권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전국에 적용되는 지방분권적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제주도에 다른 지방보다 앞선 분권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지방의 분권이 저조하기 때문에 제주도에 도입한 좁쌀만한 분권도 이미 너무 커 보이고 제동이 걸리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입법권과 재정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지방분권을 확대하고 나아가서 제주도의 특별한 지위를 보장하는 헌법개정이 필요하고 다른 나라의 선례에 비추어 가능하다고 본다. 탄핵정국과 헌법개정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분권적 헌법개정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제주도를 위해서도 불가결한 시대적 과제이다.

創造

테마가 있는 제주의 길





아무도 밟지 않은 슷눈 품은 백록담, 순수를 노래하다

글·사진 디자인리더제주

12월, 제주관광의 백미는 바로 한라산 산행이다. 겨울산행은 오감을 자극한다. 알싸하게 차가운 산공기마저 맛있다. 제주를 품에 안은 한라산은 사계절 모두 매력적이다. 봄이면 온갖 새소리가 교태를 부리고, 무더운 여름이면 시원한 신록의 그늘을 내어준다. 가을엔 붉은 기운을 단풍으로 물들이고, 겨울은 파란 하늘과 하얀 설국으로 동양화처럼 여백을 남긴다. 겨울산행, 새하얗게 덮인 눈은 온종일 밟고 걷노라면 몸과 마음 모두 진정한 힐링이 된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는 요즘, 산행을 통해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전개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다짐하는 시간을 만들면 어떨까.



성판악코스-오감만족 '겨울왕국'의 눈꽃산행

설레는 마음으로 시외버스에 올라탄다. 차장 밖으로 몇몇 남은 단풍이 지난 가을의 아쉬움을 상기시킨다. 백록담 가득 하얗게 쌓인 — 아무도 밟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 눈길을 희망하며 구불구불 5·16도로를 따라 여정을 시작한다. 오랜만에 만나는 마방목지와 길게 뻗은 삼나무숲 비자림로 입구의 모습도 반갑다. 그러기도 잠깐, 성판악입구 정류장에서 하차한다. 코끝을 자극하는 차가운 산공기가 싫지 않다.

성판악코스는 한라산 정상의 백록담과 숨은 명소인 사라오름을 볼 수 있어 인기다. 특히, 9~10시간 걸리는 힘든 코스지만 체력이 뒷받침된다면 관음사코스로 하산할 수 있어 더할 나위없이 좋다. 가볍게 준비운동을 하고 본격적인 겨울산행에 나선다. 산행길 옆을 지켜주는 얼룩조릿대와 상록수인 굴거리나무가 힘을 내려바람에 살랑인다.

성판악휴게소에서 2km 남짓 오르면 구름다리를 만날 수 있다. 완만한 숲길을 걸으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다독이는 시간이다. 이어 숲터널에 눈꽃이 피어나고 해발 1000m 지점에 삼나무 군락지가 산림욕 하기 알맞은 내음으로 마중한다. 삼나무 터널을 빠져 나오면 곧 속발대피소가 나온다. 속발은 1970년대 이전까지 넓은 초원지대로 우마를 방목하며 마을 목장으로 이용하기도 했던 곳이다. 주변에 키작은 털진달래, 광광나무, 정금나무 등이 많아 '한라정원'이라 불리기도 했단다. 이곳에서부터는 다소 경사가 급해지고 5.8km 지점인 데크 중간지점에 사라오름 전망대 입구가 나온다. 이정표를 따라 왼쪽으로 난 목재데크를 오르면 사라오름 전망대에 닿는다.



산정호수 사라오름의 숨겨진 매력

성판악코스를 오르는 이유 중 하나는 사라오름을 볼 수 있어서다. 한라산의 품안에 수줍게 자리잡은 사라오름. 제주 오름 가운데 원형화구호로서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겨울정취를 느끼기에 그만이다. 특히, 겨울이면 산정호수를 가득 채우는 설원은 그야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신비감을 불러일으킨다. 사라오름에서 내려다보이는 서귀포시의 전경과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겨울바다의 전경은 그야말로 참기 어려운 탄성을 불러 일으킨다.

한라산의 설국은 아무 때나 내어주지 않는다. 겨울이라곤 치더라도 1400m 고지를 넘어서야 얼음꽃 상고대를 관찰할 수 있다. 고도를 높일수록 나무에 핀 눈꽃이 엘사의 '겨울왕국'을 연상케 한다. 여기저기 등반객들의 짧은 환호성이 숲속 저만치 나무아래까지 퍼진다.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손을 호호불며 찍는 기념사진 촬영도 필수다.

사라오름을 뒤로하고 얼마 오르면 진달래밭을 만날 수 있다. 봄이면 연분홍 진달래가 군락을 이루는 곳이다. 등반객들은 여기에서 잠시 쉬면서 간식을 먹는다. 한라산을 오르는 이유 가운데 하나인 휴게소에서 맛보는 컵라면의 매력도 놓칠 수 없는 유혹이다.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하얀 설경을 보면서 먹는 뜨끈한 국물 맛은 뇌리 깊숙하게 박히는 ‘중독’되는 맛임에 틀림없다. 진달래밭에서 정상까지는 인고의 시간이다. 가파른 언덕의 연속으로 쉬며쉬며 산 아래로 내려가 보이는 인간세상을 감상하며 물아일체된다. 팍팍한 다리를 이끌며 오르는 한라산 정상. 남한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있는 기분은 인간으로서 호연지기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손이 닿지 않은 깨끗한 눈들이 소복하게 쌓인 백록담. 한라산을 오르는 참의미는 정상에서 바라보는 백록담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차례를 기다려 ‘한라산’이라 새겨진 기념비에서 기념촬영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등산코스



볼거리가 가득한 관음사코스(왕관릉·삼각봉·용진교)

성판악으로 올라 관음사로 길을 향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번거로움을 하루 2개의 정상코스를 완주하려는 목적이다. 관음사는 가장 험해 산행하기 힘든 코스다. 하지만 성판악 정상을 통해 내려가는 풍경은 가히 장관이다. 특히 구상나무에 핀 눈꽃과 제주시 풍광이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펼쳐지며 눈이 호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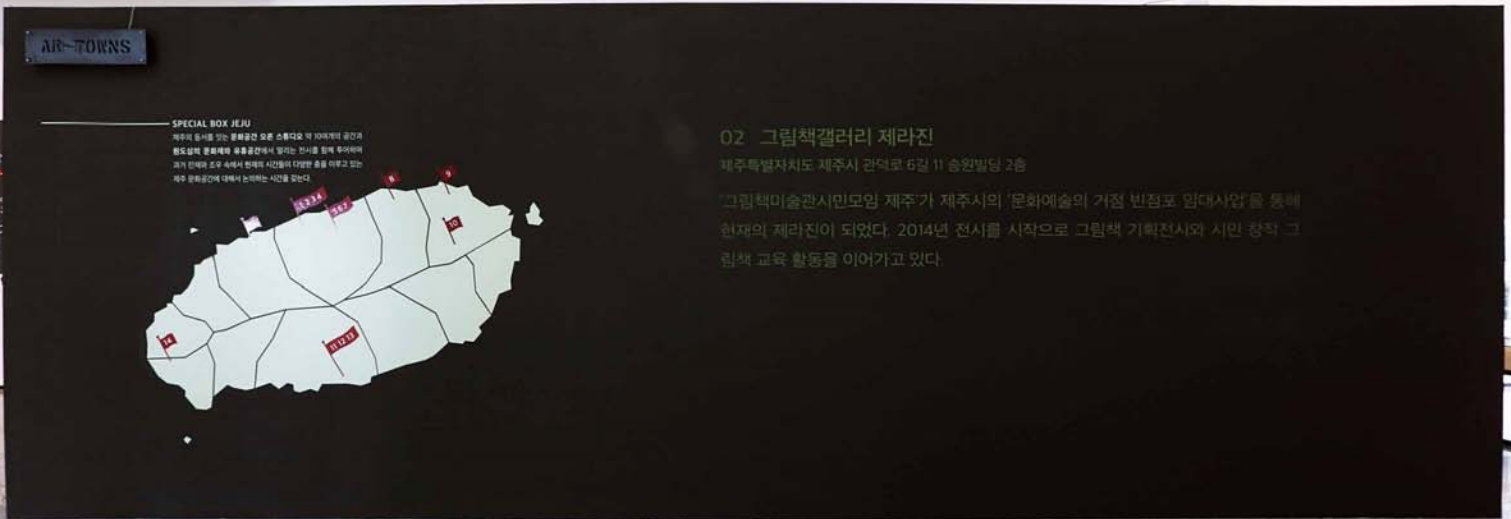
왕관을 닮았다해서 왕관릉(해발 1666m)은 신령스런 한라산에 어울리는 동화속 왕관처럼 수직으로 견고하게 서 있다. 뾰족하게 솟은 삼각봉은 위엄있어 보인다. 출렁이는 용진각 다리(현수교)를 건너는 재미도 관음사 코스와 사해 묘미다.

쉬엄쉬엄 내려오다보면 관음사 야영장을 만난다. 머리와 어깨며 무거웠던 모든 짐은 모두 내려진다. 가벼운 마음으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일상으로 돌아온다. 모두 버리고 나니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솟아난다. 언제나 묵언의 가르침을 주는 산은 그래서 좋다. 말없는 침묵 속에 느끼는 깨달음의 여운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코스별 입산 시간

구분	탐방로 입구 통제소		동절기(1~2월/11~12월)
입산	어리목	매표소	12:00
		윗세오름통제소	13:00
	영실	통제소	12:00
	관음사	삼각봉대표소	
	성판악	진달래밭 대표소	
	돈내코	안내소	10:00
	사라오름	사라오름통제소	15:00
	어승생악	어리목입구매표소	16:00
하산	윗세오름		15:00
	동능정상		13:30
	남벽분기점		14:00

*야간등산제한 | 일몰 후부터 일출 전 2시간까지



문화이주민과 예술 소통

글 오수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

제주도립미술관 '와랑와랑 모다드랑' 전시모습

2015년 기준 제주에 온 순유입인구는 1만 4천명을 넘어섰고, 올해 역시 1/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8%(4,183명)이 증가했다. 이들이 제주를 선택하는 동기를 조사해 본 결과 그 첫 번째 이유는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 싶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제주 자연에 매력을 느껴 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자연의 매력은 어제 오늘날만의 얘기가 아닌 것이 조선시대 제주에 부임하였던 목사, 판관들도 제주를 중국을 진호하는 5개의 명산¹⁾으로 표현하거나, 곤륜산 위 신선이 산다는 현포(縣圃)²⁾로 비유하는 등 곳곳을 고사성어를 통해 아름다움을 표현해 주고 있었다.

익히 문화예술계에서는 인구유입이 이슈가 아니더라도 이미 김영갑 작가, 박광진 화백, 이왈중 화백 등 일찍이 제주에 정착하여 제주의 자연을 소재로 활동해 오신 분들이 많은 것을 보면, 문화예술과 자연은 서로 맞잡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4~5년전부터 제주시 원도심이라든가, 우도, 가파도, 서귀포 작가의 산책길 등 제주도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도시, 문화마을, 문화재생 용어로 사업들이 진행되고 이슈화되는 것을 보면, 가히 제주에서 유입인구 증가는 바로 문화예술인 증가와도 연계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5개의 명산 : 五嶽(泰山(東嶽), 華山(西嶽), 衡山(南嶽), 恒山(北嶽), 嵩山(中嶽))

2. 『화남자』(전한시대 류안(劉安) 기원전 179~기원전 122)편의 서적) 곤륜 안에는 현포(縣圃), 양풍(諒風), 번동(樊桐) 등 세 개의 산이 있으며 이 산에는 황수(黃水)라는 강이 흐르고 있다. 황수는 산을 세 번 돌아 원래의 곳으로 돌아온다. 이것을 단수(丹水)라고 하며, 이 물을 마시면 죽지 않는다. 곤륜의 언덕을 오르는 것만으로 선인이 될 수 있다. 곤륜의 언덕보다 배나 높은 곳에 양풍지산(諒風之山)이 있고 이 산을 올라가면 죽지 않는다. 그 위로 배나 더 높은 곳에 현포가 있으며, 이곳을 올라가면 바람과 비를 자유로이 다룰 수 있는 신통력을 지니게 된다. 그 위로 또 배나 높은 곳에 천제가 사는 상천(上天)이 있는데, 이곳까지 올라오면 신이 된다. 위에 나열한 위치의 높이를 하나에 1만 리(4,050킬로미터)라고 한다면 천제까지의 높이는 4만 리(16,200킬로미터)가 된다.

최근 인구유입에 따른 문화정책과 맞물려 문화이주민이란 말을 곧잘한다.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의하면, 문화이주민들은 제주에서 새로운 창작공간을 조성하고 있고, 제주의 자연과 문화와 접목된 또 다른 창작예술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문화예술재단의 지원사업인 빈집프로젝트라든가, 창작공간 프로그램지원 사업들을 보면 모두 문화이주민들이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었다.

지금까지 유입되고 있는 이주민들 중에서 문화를 매개로 한 이주민들은 얼마나 되는지, 어떤 장르의 사람들이 오는지는 정확히 산출해 낼 수는 없지만, 문화이주민들에 대한 문화예술지원 정책이 확대되는 것을 보면, 이미 제주 문화예술분야에서 차지하는 그들의 양적규모와 입지는 높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유입으로 전통문화와 상충될 수 있는 문화의 혼종성에서 오는 문제점들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문화의 교류와 활력소라는 측면에서 정책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기에 가히 비판적인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제주의 대표미술관이자, 고전적 성향이 강한 제주도립미술관에서 문화재생 프로젝트 컨퍼런스란 측면에서 <비영리 전시공간 및 창작공간 아트 페스티벌>이 진행되고 있다. 이 전시는 (사)비영리전시공간 협의회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공동주최로 전국순회 5회째 개최행사로서 도내·외 전시창작공간을 연계하여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문화이주민의 문화창작공간의 역할도 주목해 볼 수 있는 기회이다.

전시운영 방법으로는 도립미술관과 도내 13개의 문화창작활동 전시공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에 맞는 전시회를 진행하는 것이다. 특히 도립미술관에서는 도내·외 각 창간공간에서 아카이브 된 활동사항과 도외 추천된 대표작품을 중심으로 전시하고 있어 섹터로의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도내에서는 이런 전시운영 방법을 시도해 본적이 없었기 때문에 도민들에게는 낯선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겠다.

이 전시회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도내 각지에 있는 전시창작공간들과 연계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전시회 감상은 물론 제주도 문화재를 활용하여 제주시 원도심 뒷골목 향사당 유희공간을 이용한 전시는 정말 불만하다.

이처럼 한 공간 안에서 작품전시라는 평면적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전시공간 활용이란 측면에서 도내 곳곳에서 추진되는 문화예술 사업들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볼 수 있으나 가파도와 우도에서도 문화재생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섬과 섬을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자리 잡는다.

- 01 이능재 作 Rosettastone <복합매체 | 227x305cm | 2016>
- 02 이기호 作 The Girl <스케이트보드 | 가변설치 | 2012>
- 03 최선 作 오수회화 <캔버스에 아크릴 | 204x160cm | 2016>



**비영리전시공간 및 창작공간 아트 페스티벌
와랑와랑 모다드림**

기간 2016.11.18 ~ 2017.01.29
장소 제주도립미술관 외 도내 창작공간
문의 064. 710. 4300





제주의 본향당굿 - 두 번째 이야기

월정 본향당굿

글 김승연 / 제주대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사진 김기삼 작가

단골과 매킨심방

본향당 안에는 선대에서부터 정해진 상·중·하단골 구분이 있다. 이 질서는 당을 설립한 역사로서 마을의 역사와 함께 변천하며 오랫동안 유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본향당굿은 심방의 끊임없는 노력과 정성에 의해서 변함없이 이어진다. 그래서 단골들은 심방이 본향당신에게 정성스럽게 제향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본향당신과 매킨심방, 단골의 신앙형성고리다. 또한 본향당 신앙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단골을 꼽을 수 있다. 여기서 단골은 마을과 가족의 안위를 위해 당굿을 봉제하는 사람들이다. 단골들은 본향당에 대한 금기를 철저히 지킨다. 제주도 본향당에서는 돼지고기 금기가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 돼지고기를 먹거나 가까이 한 단골이 본향당굿에 참가하는 것은 본향당신에 대한 죄에 해당함으로 단골들은 이 돼지고기 금기를 철저히 지킨다.

본향당에는 본향당굿을 집전하는 매킨심방 존재가 중요하다.

매킨심방은 해마다 본향당 제일에 맞게 당굿을 준비하며 필요한 만큼 소미들을 대동해 소홀함 없이 준비한다. 매킨심방은 마을 심방이 맡아서 한다. 마을 신앙을 말할 때는 본향당 매킨심방의 거취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과거 제주도 본향당은 그 설립역사 속에서 매킨심방이 함께 존재함으로 그 전통성에 영향을 미쳤다.

월정본향당의 경우에도 마을출신 심방이 매킨심방을 맡고 있어서 본향당 당매킨 심방의 자격으로 충분조건이 갖추어진 셈이다. 이 마을에서 나고 자라 심방이 된 김돌산 심방¹⁾이다. 어릴 적 무병을 앓아 심방이 되었고 본향당을 매고 있다. 김돌산 심방은 굿을 잘 아는 큰심방이다. 심방사회에서 큰심방이라 함은 복잡한 굿의 제차를 잘 알아 능숙하게 굿의 진행을 맡아할 수 있어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기 위해 많은 굿을 배우면서 오랜 기간을 두고 숙련을 하게 된 것이다. 지금은 큰굿보존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제주도 굿을 보존하고 전승시키고자 열심히 한다.



초감제(월정본향당 전경)

본향당굿과 당본풀이

월정마을 서당머체에서 본향당굿이 2013년 2월 23일(음력 1월 14일) 신과세제가 행해졌다. 당굿 초감제에서는 베포도업침 과정 중 천지왕본풀이를 하고 있는 점이 타 마을 당굿의 경우와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월정본향당의 경우도 일반적인 본향당굿의 제차와 같이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궤문열림]→[예명올림]→[삼석올림]→[당굿]→[궤문닫음]순서다.²⁾

깜깜한 새벽인데도 5시 전부터 단골들은 본향당에 나와 있다. 심방은 굿에 필요한 일행과 더불어 당에 도착한다. 심방과 굿에 필요한 연물을 내리자마자 궤문을 열고 향과 초를 피운다. 일행은 각자 제장을 정리하며 분주하게 움직인다. 당집 안은 나무로 짜여진 궤를 중심으로 양쪽에 일곱 자 길이 피륙들이 많이 걸쳐 있다. 당굿을 하면서 단골들이 폐백으로 본향당신에게 올린 파찌걸이다. 소미는 이 폐백 중 몇 개를 건고 소지와

지전 접어 본향당신 옆에 있는 나무기둥에 곱게 단장해 묶는다. 서당국서에도 예물을 올리는 것이다.

단골들은 일정하게 자리를 잡아 이장 집에서 도착하기를 기다린다. 요즘에는 이장집이 상단골이 되어 먼저 예명올림을 한다. 이장 집에서 본향당신에게 올리는 도제상을 준비해 오기 때문이다. 단골들이 어둠속에 삼삼오오 본향당으로 들어오고 예명을 올린 후 발일을 나가거나 당굿을 마칠 때까지 참여한 후에 음복을 하고 각산을 받거나 액막이를 한다. 발일을 나간 단골인 경우는 잘 아는 단골이 대신 각산 받음 한 결과를 들어 주기도 한다.

월정 본향당에는 두 신이 좌정해 각각 따로 좌정해 있다. 본향당신은 바름웃도에 좌정한 신산국삼대왕으로 남신이다. 바름알에 좌정한 여신인 서당국서는 삼대왕과 부부신이지만 임신했을 때 돼지고기를 먹었다며 바람 아래로 나가라 하여 쫓겨난다. 그래서 담을 쌓아 본향당신 왼쪽에 좌정처를 삼았다. 그래서 두 신은 각각 다른 신격이 된다.



본향당신은 신과세제에 단골들에게 제향을 받고 있어 본향신으로 위엄을 지키고 있다. 서당국서는 돼지고기를 먹은 탓에 유월 아드렛 날에 제향을 받게 된다. 각 신은 제향을 받는 제일을 구분하여 그 직능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단골들은 금기를 다르게 보며 서당머체 당내에 공간을 나누어 신의 좌정처를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서당국서는 제일에 돼지고기 금기가 없어 단골들은 제약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서당국서는 아드렛당신이 된다.³⁾

당신본풀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① 신산국 삼대왕하르바님, 서당국은 서울 황정승 따님아기로 한 살두살 비여고리 켜여 무췌설잡 담아서 바다에 띄어버리니 제주에 들어와 서당머체에 좌정하고 신산국삼대왕하고 부부가 되었다.
- ② 서당국은 산신평가 할로영산에 올라가 버리니 서당국은 한번에 쌍둥이 일곱을 낳았다.
- ③ 아기를 낳으니 고기가 먹고 싶어 상단골 중단골 하단골에 살성을 불러주어 열두 가지 오만 부술을 불러준다.
- ④ 단골들은 서당국할마님에 걸렸다고 하자 돼지고기 전 마리를 올리고 자손에게 준 병을 건는다.
- ⑤ 그 법으로 돼지고기 전마리를 잡아 장가 갈 때도 서당국 할마님한테 올리게 된다.
- ⑥ 신산국삼대왕은 올례에 와서 보니 돈경내도 나고 놀랑내 난

다며 이유를 묻자 서당국이 사실은 돼지고기 전마리를 먹었다고 하자 남자가 먹어도 그런데 여자가 먹었느냐며 땅 가르고 물 가르자며 서당국을 바람 아래로 일곱애기를 데리고 나가게 한다.

- ⑦ 신산국삼대왕은 정월 열나흘 과세문안, 백중 열나흘, 옛날 소·말하는 자손은 백중제일 바치고 서당국은 유월 초아드레 예레드레 스무아드레 만국 시월 초아드레 예레드레 스무아드레가 제일이다.⁴⁾

본향당신인 산신대왕은 ①, ②에서 보듯이 ‘신산국 삼대왕하르바님’이며 산신이다. 서당국서는 ②, ③, ④, ⑤, ⑦에서 보듯이 6월 8일이 제일인 아드렛당이고 돼지고기를 얻어먹는 신이다. ①, ⑥, ⑦은 산신인 신산국삼대왕과 서당국서는 본향당내에 위치해 있지만 돌담으로 좌정한 곳이 구분되어 있으며 금기가 다르기 때문에 본향당신은 신산국삼대왕으로 한정된다. 당본풀이에서 신산국삼대왕과 서당국서이야기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본풀이를 구분하여 신과 맡은 직능을 구분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송당본향당의 백주포와 소천국의 신의 식성으로 분산되는 사항과 같은 화소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신의 식성에 따라 돼지고기를 제향 받는 의례가 본풀이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본향당의 성격을 가늠할 수 있는 점이다.



01. 예명올림 02. 단골인정 03. 군무열림 04. 우봉지주잔 05. 새도림 06. 케문음 07. 각산받음

돼지고기를 제향을 받는 신으로 동부지역 김녕 궤네기당신이 존재하고 알송당 소천국과 세화의 금상님과 월정의 서당국서로 나타나고 있다. 이 곳들은 제주도 당신이 식성에 따라서 금기를 가지게 되고 이에 따라 당 가림의 조건으로 볼 수 있는 신앙권이다. 이 당신들은 모두 본향당신과 다른 금기를 가지고 있다.

단골의 본향당곳 참여와 신앙전승

단골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은 집안 각산 받음이다. 단골들은 각자가 준비해 온 보신탄을 심방 앞에 놓고 일일이 가족 구성원의 그해 사업 운수나 시험, 신수 등을 보고 결과에 따라 액막이를 준비한다. 단골들이 많아 소미들한테 각각 산을 받는데 당곳에서 대부분 시간을 차지한다. 단골들은 각자 준비해 온 종이나 실, 시령묵 등과 같은 제물을 제단 옆 소각장으로 가져가서 비념을 하며 함께 태운다. 이후 단골들은 제단에 각각 올려놓은 제물을 조금씩 모아서 제단에 있는 궤에 묻는다. 단골들이 직접 당신에게 바치는 정성이다.

본향당곳은 제일이 일정함으로 단골의 참여정도도 마을마다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단골의 본향당제일 참여는 단골의 의무 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참여 단골이 무척 많다는 사실이 본향당신앙의 중요성을 알게 해준다. 발일을 하며 당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단골 중 외지에 나간 후 한 번도 본향당곳에 빠진 적이 없는 단골은 일 년 중 가장 큰 행사로 고향에 와서 본향당에 제향을 하는 일이다.⁵⁾ 단골의 당신앙은 시어머니와 그 윗대부터 이어지고 있으며 봉제에 대한 부담과 당신에 대한 두터운 믿음이 내재되어 있음을 찾아 볼 수 있지만 신앙은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단골들은 음복을 통해 당신과 신앙공감대를 형성한다. 제일에 참여해서 금기와 정성을 다함으로 인정을 받고 나쁜 운이 없어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자신들이 소원을 당신이 알아준다는 확신을 각산받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곳은 신성한 공간에 대한 단골들의 신앙공감을 가지게 되는 과정이며 중요한 의례가 된다.

1) 여, 62세 2) [당곳 제차] 초감제: 배포도업침(천지왕본풀이)-날과국섬검-자손열명-마을연유담-신매음-당신본풀이-새도림-도레돌러땀-젓뱃제맞이곳-군무열림-분부사름-본향들: 오리정신창제-본향청함(우봉지주잔)-오리정정대우-삼한관헌작배례-자손소지 사름-음복지주잔-군웅-일월(놀래)서우젓소리-추물공연: 제반건고 케문음-각산받음-도산받음-액막음-도진-케문답음 3) 서당국할마님제일(음, 6.8.18, 10.8.18) 2013년 7월 15일(음 6.8) 당곳 4) 2013. 2. 23(음력 정월 열나흘) 월정신과세 김돌산 매인심방(당, 62세 여)

5) 단골본인은 60세가 넘어 본향당에 대한 신앙을 거둘 수도 있지만 자식들을 위해서는 그만 둘 수 없다는 당신앙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다. 시어머니한테서 물려받은 신앙이며 자신은 존중하지만 자신의 머느리한테는 이어가라는 유지는 할 수 없다고 한다. 자신은 이 마을에서 결혼을 했고 당이 세기 때문에 그만 둘 수 없다고 한다. 아들 머느리는 결혼 할 때부터 이곳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어가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한다. 16년째 본향당제일 참여하고 있다. (월정출신, 60대 타지거주, 2013, 신과세제 월정 본향당.)

하나뿐인 섬, 좋게 멘듭주

글 김창집 / 소설가·제주작가회의 자문위원

개발과 보존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다루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작금의 제주 섬은 자동차가 대로에 넘쳐나고, 주거와 쓰레기 처리 난으로 골머리를 앓는다. 어디 그뿐이라? 임기응변으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개발 역시 도를 넘어 한라산 국립공원만 남기고 섬 전체를 잠식해버릴 기세다. 하나뿐인 섬에 사는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지혜를 모아 50년, 100년 뒤를 내다보는 로드맵을 짜고 절제하면서 섬을 낙원으로 만들어야 할 과제를 떠안고 있다.

교통대란 일보 직전

요즘 차 탕 나사문 어떻 땡길만 허우까? 불과 몇 년 사이에 얼마나 차가 맥히는지 7집하기¹⁾ 짝이 웃어마썸. 바쁜 때쯤은 차 들러좌땡²⁾ 나령 활활 견고 싶은 때가 이십주.

그것만이문 좋게마썸. 골목으로 들어강 뵙서. 양쪽으로 찰 잔뜩 세와 놓으난 어디서 차라도 들어오문 다치카부덴 트멍 초앙 들어사기가 바쁘니, 더 곶앙 무신거 흡니까? 경하고 그치록 좁작흔 골목에 안 직도 집 짓일 디가 성, 혼 번에 으라 세대가 들어갈 집을 홀터³⁾ 짓엄시난, 차고사 멘들암젠 허주마는 그 차덜 다 어떻 땡기 코 심히 즈들아썸다.

이거 다 치얌부터 버릇 잘못 내와부난 그 거라마썸. 그 버릇 고치젠 허문 빼⁴⁾를 깎는 고통이 뜨라야 홀 겨우다. 어디 소통 잘 뀘는 세계에 강 방 왕 머리를 맞대여 사 허주, 경 안허문 궂 대란이 일어날 거

뵙아마썸.

교통대란이 일어남, 빼도 박도 못 허여가 문 관광이 어디 시멍 생활하는디 얼마나 불펜허쿠가. 쥘 범벅진⁵⁾ 거 풀어 봐썸주 예. 허썸이라도 덜흔 때가 쉽게 풀어지주, 더 범벅 멘들앙은 그창 데껴볼 수도 엇곡 그거 어떻홀 겨우까?

개발만 하영은 못 삼주

요즘 오름 가멍 베려보문, 츠마 이디77장 들어사라 혼 디도 문딱 집이라마썸. 바로 오름 붙은 디77지 흡치⁶⁾ 므을 하나 땡 정 도로 집덜이 들어산디도 십디다. 곤는 거 들으난 중국 즈본이 들어왔고, 중국 사름 덜신디 문 분양이 땡엿젠 허난 가심이 답 답허여집디다.

어느 외국 재벌이 돈 하영 투자허영 무신 것덜 세운땡 들은 것 뵙은디, 꽃자왈이고 뵙디고 혼굿드로 파헤친 디, 집 짓당 놔 둔 디가 으라 밧디라마썸. 그자 외국에서



왕 투자헌팅 헌문 공짜 닭양 드러 유치헌
쟁 눈이 벌겅게 돌아댕겼주마는 이제 왕
봄서. 어디 하나 번듯하게 내세울 디가 있
수강? 그자 카지노나 들어놓앙 돈 벌 여
산⁷⁾이나 헌당 안 땀직헌문 땅 장시나 헌
여뒀 돌아나는 겁주.

과거 이녁 술 그차⁸⁾ 먹는 건 중도 몰르곡,
그자 골프장만 댜들문 골프 치레 관광객
이 들끓곡 세금 받으문 부제가 땀 듯이
투자 유치헌팅 그걸 실적이엿 내세왓주
마는 이제 왕 보난 너미 하부난 으라맛디
부도난 허맹이문세⁹⁾가 뒤퍼볼지 아니헌
옛수가?

이제 50년, 100년 앞을 내다 뵈

‘개발’ 헌문 세수(稅收)광 관광산업 발
전, 일자리 창출을 내세웁주. 경헌디 문
저 개발헌여 놓은 디 봄서. 치얌엔 체멘
상 땀 사람 붙엿 허드렛일이나 시켜텅기
당 으부룩스부룩¹⁰⁾ 바꾸와 부는 디가 하

마썸. 경헌고 어떤 디선 돈도 배랑 엇인
것덜이 들엿 잔뜩 기대나 부풀렷 투자헌
켄 헌당 뵈 볼일 엇엄직 헌문 손을 떼여
부릅수게. 관광도 그자 실적 위주로 땀만
땀. 땀십만 땀 유치 실적만 올리젠 말앙
실속을 쟁길 때우다.

생각헌여 보문 우린 너미 임기응변식 개
발을 하엿 헌여서마썸. 경 아니헌엄직 헌
어룬도 그 자리에만 앓이문 꼭 무신 거
하나들은 개발헌팅 헌여시난 말이우다.
이번에사 알앗주마는 순실이치록 큰 손
이 셔둬서 우티서 누르땀¹¹⁾ 불문 경 아니
홀 수 엇어실 텅주. 홀 수 웃이 어떻어땀
개발논리를 내세왕 동네 책임자나 꼬시
곡, 관 동원헌팅 밀어붙인 겁주. 매사가
경헌여부난 의회나 환경운동 헌는 사람
덜광 맨날 싸운 거 아니우깁.

이젠 다 알아볼런 그런 식은 안 통홉니
다. 개발특별법이나 환경자원총량제만
그정 잘 땀카마썸. 관(官)광 의회광 주민
덜 문뜩 정신 츠려사 홀 때우다. 헌디 모

다들엿 주거, 교통, 쓰레기 등 으라 가지
개발 문제를 다루는 상설기구를 마련헌
엿, 드러 토론헌팅 앞으로 50년, 100년
후를 내다보는 로드맵을 작성헌 후젠 누
계가 땀이엿 헌여도 그대로만 나가는 거
라마썸.

제주어 풀이

- 1) 그깽하다 : 갑갑하다. 답답하다.
- 2) 들러쭈다 : 내팽개치다.
- 3) 홀터 : 마구.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 후려.
- 4) 뵈 : 뵈.
- 5) 범벅지다 : 실 따위가 뒤엿하다.
- 6) 홉치 : 한꺼번에.
- 7) 여산 : 계획. 생각.
- 8) 그치다 : 끊다. 자르다.
- 9) 허맹이문세 : 허망한 문서. 아무 증거나 소용이 땀
지 못하는 문서나 일.
- 10) 으부룩스부룩 : 때에 따라 머리를 써서 요리조리,
기회를 보아 잘 적응해 가는 꼴.
- 11) 누르뜨다 : 힘을 주어 누르다.

제주어 풀이



점포 시설비 회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 오윤석 / 입법정책관실 변호사

변호사가 된 이후 법적인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구하는 지인의 전화 등을 자주 받게 된다.
그 중에서도 자주 듣게 되는 질문 중 하나인 “점포 시설비 회수(가게 인테리어비 회수)”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지인 A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청구권

지인 A(임차인)는 점포를 임차 사용 중 자신의 돈을 들여 기존 벽면 위치의 변경, 칸막이 설치 및 바닥교체공사 등을 한 후 영업을 했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물어왔다. 이에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내용, 행사방법, 포기에 관한 특약)을 알려드리며 도움을 드린 적이 있다.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내용

사례와 같이 임차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할 경우에 그 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을 임대인이 얻는 것은 부당이득이 된다는 점에서 임차인은 그 이익의 증가에 대해 상환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바, 「민법」 제626조제2항은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지출한 금액 또는 증가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두고 있다.

이러한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위해서는 우선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의 ‘유익비’ 여부가 중요하바, 이는 건물의 사용목적 등 기타 구체적인 사정을 통해서 판단되고 있다. 즉,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으로 꼭 목적물 자체의 가치를 증가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나, 건물용도와 달리 오직 임차인이 자기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관련 판례가 있다.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점포에서 카페영업을 위한 공사 및 카페의 규모를 확장하기 위한 내부시설공사의 비용(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8029 판결)
- 2층 사무실용 건물부분에 삼계탕 집을 경영하면서 들인 비용(대법원 1993. 10. 8. 93다25738 판결)
- 임차인이 임차건물 부분에서 간이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 간판을 설치한 경우의 그 비용(대법원 1993. 9. 30. 선고 94다20389 판결)
- 음식점 영업을 위한 신발장 및 다용도장 공사비나 기존 칸막이 철거 및 새로운 칸막이 설치 비용(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5591 판결)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행사

지출한 비용이 ‘유익비’라고 볼 수 있다면, 유익비 상환청구의 행사시기와 관련해 임대차 종료 후에 청구가 가능하며,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법원이 상당기간 상환의 유예를 허락한 경우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한다(민법 제617조 및 제654조). 행사 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점포 등의 개량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나 현존하는 증가된 가액 중 하나이며, 그 입증책임은 임차인에게, 그 금액사항의 선택권은 임대인에게 있다.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포기와 관련한 특약

그러나 「민법」 제626조제2항에 따른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민법 제652조)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약정으로 이를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로 계약서 등의 내용을 통해 판단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설치한 모든 시설물에 대해 임대인에게 시설비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정(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은 임대인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44705 판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 반환 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 한다는 약정(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은 향후 유익비의 상환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시설비 투입 시 유의사항

결국 지인 A의 사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을 통해 지출한 금액이 임차물에 대한 객관적 가치를 향상시킨 유익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계약서상 시설비와 관련한 사항이나 원상회복에 대한 사항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임차물에 대한 시설비 투입 시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시설비 투입에 대한 사항과 원상회복 사항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임차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점포 등의 개량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나 객관적인 가치 증가액을 입증할만한 자료 등 향후 유익비 상환청구를 위해 확보해 두어야 하겠다.



커뮤니티 디자이너 야마자키 료 교수 초청 주민참여형태의 마을 만들기 방법 세미나

2016년 11월 09일 수요일 09:20~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 주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Vol. 05
천개의
고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Visit

알고 싶어요 -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의 뜻을 모아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곳을 만듭니다

“〈재생〉과 〈재개발〉을 혼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발전이나 개발로는 더 이상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생’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욱 살고 싶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주의 원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시 삼도2동, 향사당 인근에 자리잡은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를 찾았다. 이곳에서 만난 이재근 사무국장은 ‘재생’의 의미를 우선 풀어냈다.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 9월 22일 제주시 원도심 지역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지역 주민과 행정 간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 주민참여 및 홍보와 주민역량 강화사업, 주민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주민협의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역 주민과의 현장소통 강화를 위해 원도심 지역 한복판에 기존의 폐가를 재생하면서 사무실을 마련했고, 도시재생 과정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주민들로부터 ‘공원을 만들자’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럼 센터의 역할은 어떤 공원을 만들 것인지 의견을 들을 강사를 섭외합니다. 공원을 만드는 주체는 주민이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여기에 공원을 만드는 것, 즉 건축과 관

련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도록 섭외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주민들로부터 '이제 비로소 해보자!'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끌어내도록 합니다. 이것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입니다."

이 사무국장은 원도심에 대한 '재생'의 관점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했다. 우선, 정주여건을 개선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역사·문화·관광의 관점에서 유동인구를 늘림으로써 '원도심 지역 본래의 가치를 찾아 나가자'는 것이다. 제주 유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된 향사당의 경우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치가 매우 크다. 제주시 삼도1동에 위치한 향사당은 조선시대의 전각으로 고을의 나이 많은 어른들이 모임을 갖고, 당면과제를 의논하거나 민심의 동향을 살피던 곳이다. 1909년에는 신성학원으로 이용되다 1981년 고쳐지었다. 도시재생센터에서는 제주도로부터 향사당에 대해 관리기관을 받은 후 각종 영화상영, 국악공연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향사당 운영을 통해 기존의 역사공간을 도민의 삶의 공간 속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은 큰 의미를 가진다. 민심의 동향을 살피는, 즉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재생'을 이뤄내는 것이다.

"주민 각자의 의견도 다양하지만, 상인, 건물주, 토지주 모두의 의견도 다양합니다. 각자의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라면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주민 여러분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주택과 상가의 임차료가 높아졌다고 소득이 높아지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어야 살겠죠. 안전하고, 너그럽게 지낼 수 있는 공간. 도시재생은 그런 공간을 지향합니다."

주민과의 만남과 소통은 필수적이다. 원도심 지역 5개 동의 자생단체, 상인협의회, 문화예술단체 관계자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동안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모두가 소통의 대상이다. 주민과 주민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주민간의 자발적인 모임을 갖고, 작지만 의미 있는 구상이 떠오르면, 적극적으로 지역 재생의 거름이 되는 것이다.

주민의 소중한 의견이 모이고, 또 사업이 진행된다. 어쩌면 이 과정에서 결과를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걸려 진행되는 일이라면, 믿음이 간다. 주민과 주민이 서로 관계를 맺어 지역의 가치를 키워나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01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이재근

02 도민기획단 회의모습

03 향사당음악회 '제주빌레앙상블'





제주해녀문화의 가치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첫 걸음

나선화 문화재청장, 좌남수·이선화 의원에게 감사패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행사가 '어머니 숨비소리, 세계를 품다'를 주제로 12월 14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기념식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이선화 의원이 제주해녀문화의 가치를 알리고 해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여한 공로로 나선화 문화재청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원희룡 도지사는 기념사에서 “이제 제주해녀문화는 세계인이 보전해야 될 인류 모두의 가치가 됐다.”며 “앞으로 제주해녀문화를 지속가능한 상태로 보존, 전승해 세계적인 보물로 꽃 피우겠다.”고 다짐했다.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축사에서 “이제 제주해녀를 보존하고 육성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해녀의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다양한 자원과 생활의 터전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양자원을 육성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바다 생태계를 지키는 일이 우선 돼야 한다.”고 밝혔다. 나선화 문화재청장 역시 “이번 제주해녀문화의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는 목표가 아니라 인류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하고 전승해야 하는 첫 발을 내딛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며 “문화재청은 해녀문화 보존을 위해 제주도와 함께 고민하며, 그 가치를 세계인들과 널리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THE YOUNG ARTIST OF JEJU

제주의 젊은작가 | 김지형



해녀 | 장지에 채색 | 162x130cm | 2015

작업노트 | 나의 작품 속 사랑스러운 해녀의 이미지에서는 수년 간 매서운 파도와 칼 같은 바람과 싸우며 거칠어진 피부와 주름들은 찾을 수 없다. 그녀들의 삶이 묻어있는 깊은 얼굴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생계를 위해 목숨을 건 작업을 하는 해녀들 역시 여자이기에 나의 작품에서나마 귀엽고 사랑스러운 여인의 모습으로 담고 싶었다. 사랑스러운 소녀 이미지의 해녀는 색색의 점들과 만나 즐거운 이미지로 만들어졌다. 귀여운 해녀의 이미지와 무수히 반복되는 색 점들을 통해 대상에 대한 나의 감정과 동시에 기분 좋은 이미지를 작품 속에 담고 싶었다.

색 점에 대하여 | 무수히 많은 색 점들이 군집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사이에 어떤 이미지가 숨어 있는 것 같다. 마치 색맹 검사표처럼 말이다. 크기가 다른 색 점 사이에 이미지가 숨어 있는 것처럼 그 점들 사이에 숨어 있는 대상을 상상하는 것은 흥미로웠다. 점이라는 요소에 매료되어 작업에 색 점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점은 가장 최소한의 요소임과 동시에 많은 것을 내포할 수 있는 추상적 이미지이기도 하다. 색색의 점들은 물방울, 돌담, 꽃, 파도 등을 대신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작품 속 이미지와 결합해 감정을 전달하기도 한다. 때로는 복잡함, 슬픔을 나타내기도 하고 발랄함,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대신하기도 한다. 내 작업에 있어 점은 이렇게 하나의 상징적인 도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제주해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도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해녀문화를 지속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 63119 제주시 문연로 13 TEL 064-741-2222 FAX 064-741-1999